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브라질

1.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브라질 연방 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Brazil)
면적	8,511,965 km ² (자료원 : 브라질 지리통계원(IBGE), 2021 기준)
수도	브라질리아(Brasilia, 인구 3,094,325명)
민족(인종)	백인(47.51%, 포르투갈계, 독일계, 이탈리아계, 스페인계, 폴란드계 등), 혼혈(43.42%), 흑인(7.52%), 기타(1.55%: 일본계, 아랍계, 인디오).
언어	포르투갈어
종교	가톨릭(50%), 개신교(31%), 무교(10%), 기타(9%)
기후	열대성(북부), 아열대성(중부), 온대성(남부) 연평균 기온은 23~24°C로 4계절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국가원수	대통령: 자이르 메시아스 보우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59-10-31 (자료원 :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역협정 발효	1963-05-21		
문화협정 발효	1967-10-20		
공동위 설립 양해각서 서명 및 발효	1989-09-28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1991-11-21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1992-09-10		
과학기술 협력협정 발효	1992-12-30		
범죄인인도조약 서명	1995-09-01		
투자보장협정 서명	1995-09-01		
정책협의회설치 양해각서 서명 및 발효	1996-09-12		
상용복수사증발급협정 서명	1996-09-12		
관광협력협정 서명	1996-09-12		
관광협력협정 발효	1997-11-25		
상용& 투자 및 취재 복수사증 발급협정 발효	1997-12-25		
사증면제협력협정 서명	2001-01-18		
원자력협력협정 서명	2001-01-18		
범죄인 인도조약발효	2002-02-01		
일반사증면제협정 발효	2002-05-02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2002-12-13		
원자력협력협정 발효	2005-07-25		
형사사법공조조약 발효	2006-02-08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체결	2010-12-16		

제2차 한-브라질 재무장관회의에서 수출입은행과 브라질 국영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간 금융지원 업무협력 MOU	2011-10-18		
사회보장협정 발효	2015-11-01		
한-브라질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2019-01-10		

한국교민 수

50,000 명 (자료원 : 브라질 한인회)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남미 순방 중 마지막으로 브라질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브라질 지우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과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와 실질협력 증진방안,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18년 3월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브라질 대통령궁에서 미세우 떼메르(Michel Temer)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브라질 방문

- 2004.11 노무현 대통령
- 2005.06 김승규 법무부장관
- 2007.02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 2007.07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2008.11 이명박 대통령
- 2009.04 정중환 국토부장관
- 2009.08 이상득 특사
- 2010.05 김형오 국회의장
- 2011.01 김황식 국무총리
- 2011.10 백재완 기획재정부장관
- 2012.05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 2012.06 이명박 대통령(Rio+20정상회의)
- 2013.03 강창희 국회의장
- 2015.03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
- 2015.04 박근혜 대통령
- 2015.07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2015.07 김경환 국토부차관
- 2015.11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 2015.12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
- 2016.08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2017.02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 2017.12 임성남 외교차관
- 2018.03 이낙연 국무총리

2019.01 전해철 특사, 최인호 의원(대통령취임식)
2019.07 김무성 중남미의회 외교포럼 회장 및 원혜영 한-브 의원친선협회장 외 8명 의원

▶한국 방문

2001.01 Fernando H. Cardoso 대통령
2002.06 Amaral 개발상공부 장관
2003.05 Pires 감사원장
2005.05 Lula 대통령
2007.09 Marta Suplicy 관광부 장관
2008.04 Dilma Rousseff 정무 장관
2009.11 Pedro Britto 항만특별부 장관
2010.06 Guido Mantega 재무 장관
2010.06 Altemir Gregolin 수산양식부 장관
2010.11 Lula 대통령 및 Dilma 당선자(G20)
2012.03 Temer 부통령(핵안보정상회의)
2013.08 Jose Mucio 회계감사법원 위원(장관급)
2013.11 Aroldo Cedraz 회계감사법원 부위원장(장관급)
2014.09 Ricardo Lewandowski 연방최고법원장
2015.05 Renato Janine Ribeiro 교육부 장관
2016.09 Blairo Maggi 농축산식품공급부 장관
2017.06 Luiz Ferreira 산업개발청장
2018.05 Aloysio Nunes 외교장관
2021.03 Fontes 과학기술혁신부 장관
2021.08 Faria 통신부 장관

* 출처: 상파울루 총영사관 / 외교부

경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당시 한국과 브라질은 혁신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브라질 5G 인터넷 개발을 위해 한국-브라질 기업 간 협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오랜 기간을 끌어온 다자협정 도하 라운드가 협상국 간의 의견 차이로 결렬상태에 빠진 데다가, 남미 인근국이 다수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경제성장을 제고에 성공함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그동안 FTA 체결에 매우 소극적이던 자세를 바꿔 실리 위주의 양자협정 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7년 3월 브라질(메르코수르)은 한국과 무역협정 대화 재개를 발표하였으며 관세감면 품목 리스트 작성 단계를 거쳐, 2018년 5월 무역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2018년 9월에는 한국-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1차 공식협상이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렸다.

이후 한국과 남미를 오가며 양측 간 협상이 진행됐으며, 2020년 2월 우루과이에서 제5차 협상, '21.6월 6차 협상(화상회의), '21. 8. 30.~9.3. 7차 협상(화상회의)이 개최됐다. 가장 최근에 열린 7차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위생검역(SPS) 관련 협상이 진행됐다.

문화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USP) 내에 중남미 최초로 한국어학과가 개설됐으며 주브라질 한국문화원은 2013년 개원 이후로 2014년 월드컵, 2016년 리우 하계 올림픽 등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며 한국문화가 브라질 곳곳에 보급되도록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국문화원은 현재

상파울루시 문화의 중심지인 Avenida Paulista 지역으로 이전하여 2019년 8월 초 개원했다.

2019년 5월 25~26일 브라질 알리안츠 파르키에서 열린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공연에서 10만 관객이 방탄소년단 (BTS)의 공연을 즐겼다. 방탄소년단 공연 입장권은 인터넷을 통해 발매한 지 75분 만에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은 '기생충'과 '미나리'가 몰고 온 한국 영화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유지하고 저변을 넓히기 위해 2021년 5월 8일부터 한국 영화 상영회를 개최했다. 윤여정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과 '미나리' 브라질 개봉을 기념해 윤여정의 출연작 '장수상회'를 상영하며, '빈센조' 출연으로 큰 화제가 된 배우 송중기가 주연을 맡은 '늑대소년'이 선보였다. 한국 영화 상영은 2021년 12월까지 매주 둘째·넷째 토요일에 문화원 1층 문화광장에서 오후 4시에 상영된다.

브라질의 10월 어린이 달을 맞아 상파울루 한국문화원이 개최한 '핑크퐁 원더스타'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렸으며 김치와 전통주가 어울린 한국 음식 페스티벌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렸다. 한국 음식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종류의 김치와 김치전·김치볶음밥·김치 만두 등 김치를 활용한 요리를 맛보는 기회도 제공됐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	1.32	1.78	1.41	-4.06	
명목GDP (십억\$)	2,064	1,917	1,877	1,434	
1인당 GDP (PPP, \$)	14,597	14,737	14,827	14,140	
1인당 명목 GDP (\$)	9,978	9,194	8,932	6,783	
정부부채 (% of GDP)	83.63	85.64	87.66	98.94	
물가상승률 (%)	3.45	3.67	3.73	3.21	
실업률 (%)	12.77	12.26	11.93	13.24	
수출액 (백만\$)	214,988	231,890	221,127	209,180	
수입액 (백만\$)	158,951	185,322	185,928	158,787	
무역수지 (백만\$)	56,037	46,568	35,199	50,393	-
외환 보유고 (백만\$)	373,972	374,715	356,884	355,620	
이자율 (%)	7	6.5	4.5	3	
환율 (자국통화)	3.19	3.65	3.94	5.2	

<자료원 : IMF, COMEXSTAT(브라질 무역통계사이트), 브라질 중앙은행>

경제 동향

지속적인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금리 인상,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인해 2015년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3.5%, 2016년은 -3.28%를 기록,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2017년의 경우, 소비가 늘고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회복세를 보여 GDP 성장률 1.32%를 기록하였다. 2018년에는 2%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성장률이 1.78%에 그쳤다. 이처럼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률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치 불안과 환율 불안, 화물연대의 대대적인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으로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2019년 브라질 경제는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고환율, 정치 혼란 등으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았다. 정부 숙원인 연금 개혁이 11월 발효되면서 외환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였으나 결국 1.41%의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는 연금개혁 등 국내 상황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브라질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려면 연금 부문 외에 조세 개혁 등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격리 등으로 경제 활동이 3-4월에 급속하게 둔화했다가 5월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도 5월부터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연말부터 나타난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 2020년 GDP 성장률은 -4.06%를 기록했다.

브라질 경제의 아킬레스건 가운데 하나인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민영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질적인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금·조세 등 분야의 개혁과 함께 공기업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영화에 더욱 큰 기대를 걸고 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2019년 6월 28일 FTA 체결에 합의했다. 메르코수르는 EU 제품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약 40억 유로의 관세를 면제할 예정이며 EU는 메르코수르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약 90%에 대해 향후 10년 동안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브라질 정부 전망에 따르면 해당 협정 발효 후 15년 동안 브라질 GDP가 적어도 875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비관세 장벽 완화와 생산성 증가 등을 고려하면 GDP가 1,250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 주요국은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對브라질 투자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EU 회원국들 FTA에 반대하고 나섰다. 유럽의회는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재임하는 한 브라질과 협상이 진전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는 별개로 메르코수르 공동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내부 논의도 진행 중인 바, 현재 평균 13.6%인 공동관세를 점차 인하하여 절반 수준인 6.4%로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개방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관계 등 대외정치 변수와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브라질 산업계의 입장 등 내부 변수가 시장개방 정책에 미칠 영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2019년 3월 발효된 브라질-멕시코 자동차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에 버스 및 트럭, 관련 부품이 추가되었다. 당초 계획은 2020년 7월부터 버스 및 트럭에 부과되는 관세의 전면 철폐였으나, 양국은 관세 철폐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 2023년 100% 철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메르코수르가 회원국 간 자동차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EU와 FTA 체결 합의에 따라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것에 대비한다는 의미이다. 브라질은 또한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 무역장벽 완전 철폐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는 향후에도 무역 장벽 철폐, FTA, 체결 확대 등 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11월 5일 전체 수입 품목의 87%에 대해 관세를 10% 내리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관세 인하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 속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수입 제품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하하여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며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경제 전망

경제전망	<p>2020년 초 브라질 정부는 2.5% 안팎의 경제 성장을 전망했다. 그러나 2월부터 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무역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3월부터는 브라질에도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전파돼 공장 폐쇄, 사회적 격리 등이 시행되면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5.4%로 수정됐다. 그러나 5월부터 조금씩 공장 가동이 시작되고 산업생산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0년 GDP 성장률은 -4.06%를 기록했다.</p> <p>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2021년 들어 고용환경은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나 실업률은 올해 1~3월 14.9%를 기록한 뒤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3분기 실업률은 12.6%로 3개월 단위 실업률 조사에서 실업률이 13%를 밑돈 것은 작년 4월 이후 처음이다. 12월 기준 환율은 1달러=5.7헤알이며 2022년 브라질 대선을 앞둔 정국 불투명 등 때문에 당분간 1달러=5헤알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은행은 2021년 GDP 성장률을 4.58%로 2022년 성장률은 0.5%로 전망하고 있다.</p> <p>국립통계원(IBGE)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브라질 누적 물가 상승률은 10.04%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도 10%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04%는 정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5.25%를 훨씬 넘어선 수치이다.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12월 8일 기준금리를 7.75%에서 9.25%로 1.5%포인트 인상했다. 3월 이후 7차례 연속 인상이며, 2017년 7월 10.25%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다. 기준금리 인상은 연료비, 전기요금, 가정용 가스, 식료품 가격 등 물가 급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p>
------	--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48,016,328,998
2	미국	27,606,359,502
3	아르헨티나	17,960,264,846
4	네덜란드	7,665,785,182
5	독일	5,521,157,177
6	일본	5,398,899,264
7	칠레	5,054,776,340
8	인도	4,844,748,172
9	멕시코	4,723,427,353
10	스페인	3,923,298,485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64,091,562,070
2	미국	30,015,634,990
3	아르헨티나	14,945,711,714
4	네덜란드	8,286,445,343
5	칠레	6,447,417,317
6	독일	5,385,894,504
7	스페인	5,194,050,844
8	멕시코	4,730,391,570
9	일본	4,381,234,214

10	인도	4,022,050,732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63,503,359,551
2	미국	30,668,439,385
3	아르헨티나	9,814,169,662
4	네덜란드	7,310,784,839
5	일본	5,493,307,376
6	멕시코	5,213,072,433
7	칠레	5,187,206,247
8	독일	5,052,632,592
9	스페인	4,092,805,250
10	캐나다	3,563,278,562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67,918,585,263
2	미국	21,880,507,816
3	아르헨티나	8,503,055,189
4	네덜란드	6,732,916,471
5	독일	4,439,945,516
6	캐나다	4,411,674,991
7	일본	4,189,656,711
8	스페인	4,089,050,436
9	멕시코	4,018,793,371
10	칠레	3,849,842,523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29,479,679,202
2	미국	29,370,988,183
3	독일	10,073,078,811
4	아르헨티나	9,822,200,217
5	대한민국	5,550,860,403
6	프랑스	4,808,447,327
7	멕시코	4,594,167,814
8	이탈리아	4,325,903,894
9	일본	4,239,314,377
10	칠레	3,614,039,604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36,767,352,860
2	미국	34,709,445,397
3	아르헨티나	11,520,028,512
4	독일	11,367,166,318
5	대한민국	5,692,028,816
6	멕시코	5,475,499,967
7	프랑스	5,375,711,739
8	이탈리아	5,105,236,939
9	일본	5,061,008,045
10	인도	4,078,872,465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37,501,951,109
2	미국	36,693,248,715
3	독일	11,371,149,388

4	아르헨티나	11,044,934,491
5	멕시코	5,277,726,169
6	대한민국	5,272,734,494
7	프랑스	4,985,126,903
8	일본	4,910,050,340
9	이탈리아	4,856,714,550
10	인도	4,776,101,081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36,769,575,855
2	미국	29,816,387,014
3	독일	9,865,118,106
4	아르헨티나	8,218,153,679
5	대한민국	4,688,996,779
6	인도	4,378,150,679
7	일본	4,341,796,794
8	프랑스	4,304,614,492
9	이탈리아	4,247,698,287
10	멕시코	4,008,074,790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120190	기타	25,714,029,538
2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16,843,063,844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6,686,282,426
4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9,277,820,569

5	470329	활엽수류로 만든 것	6,097,719,644
6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5,008,120,958
7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4,680,493,091
8	020714	절단육과 설육(脬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4,631,107,624
9	100590	기타	4,567,072,718
10	020230	뼈 없는 것	4,359,942,091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120190	기타	33,046,705,215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5,251,949,388
3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16,794,169,257
4	470329	활엽수류로 만든 것	7,874,287,441
5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6,727,959,669
6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5,482,944,963
7	020230	뼈 없는 것	4,524,991,254
8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4,393,816,469
9	020714	절단육과 설육(脬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4,361,375,264
10	100590	기타	3,925,464,353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120190	기타	26,071,755,696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4,199,539,301
3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20,288,902,721
4	100590	기타	7,212,175,841
5	470329	활엽수류로 만든 것	7,087,272,755

6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5,868,474,534
7	020230	뼈 없는 것	5,638,983,899
8	020714	절단육과 설육(脬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4,850,435,594
9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4,624,507,371
10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4,585,637,473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120190	기타	28,560,587,641
2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24,856,310,565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9,740,707,016
4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7,463,027,928
5	020230	뼈 없는 것	6,664,964,841
6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5,966,471,146
7	100590	기타	5,786,083,439
8	470329	활엽수류로 만든 것	5,637,353,976
9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4,997,882,225
10	271019	기타	4,370,883,135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6,709,896,552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5,737,608,458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046,182,674
4	851770	부분품	3,033,796,839
5	270112	유연탄	2,983,585,569
6	310420	염화칼륨	2,586,318,760

7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2,564,309,768
8	300490	기타	2,348,750,395
9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2,051,613,487
10	852990	기타	2,046,904,482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7,936,535,575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5,500,922,789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162,961,311
4	310420	염화칼륨	3,336,110,972
5	270112	유연탄	3,081,794,072
6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2,786,100,533
7	851770	부분품	2,776,020,090
8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2,644,025,093
9	300490	기타	2,469,241,256
10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2,415,861,819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8,200,078,178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5,359,711,355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813,815,110
4	310420	염화칼륨	3,650,949,218
5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3,312,595,766
6	270112	유연탄	2,952,881,996
7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2,884,014,724
8	851770	부분품	2,834,623,223
9	300490	기타	2,674,391,890
10	89052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05,886,191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5,155,620,960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795,432,308
3	310420	염화칼륨	2,781,350,653
4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761,144,320
5	851770	부분품	2,668,339,775
6	300490	기타	2,479,109,140
7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2,458,294,238
8	89052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101,054,870
9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럭(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2,032,444,543
10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859,683,997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7	5,505	3,702	1,803
2018	4,884	3,908	976
2019	4,809	4,296	513
2020	3,944	4,237	-293
2021	4,229	5,994	-1,76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816	4	812
2	7420	자동차부품	517	9	508
3	2140	합성수지	219	7	212
4	2261	농약	61	1	60
5	2262	의약품	224	17	206
6	7111	원동기	110	2	108
7	7251	건설중장비	68	0	67
8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10	2	108
9	6134	아연도강판	65	0	64
10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76	1	7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848	3	845
2	7420	자동차부품	531	9	522
3	2140	합성수지	322	5	317
4	2261	농약	191	0	191
5	2262	의약품	185	23	162
6	7111	원동기	168	2	166
7	7251	건설중장비	107	1	106
8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87	2	85
9	6134	아연도강판	86	0	86
10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77	1	76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10	원유	0	657	-658
2	1120	철광	0	965	-966
3	0135	박류	0	573	-574
4	0113	두류	0	243	-244
5	0136	사료	0	295	-295
6	6181	합금철	2	195	-193
7	0222	가금육류	0	211	-211
8	2511	펄프	0	188	-188
9	0191	천연섬유원료	0	72	-72
10	0151	커피류	0	100	-10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10	원유	0	1,458	-1,458
2	1120	철광	0	1,369	-1,369

3	0135	박류	0	661	-661
4	0113	두류	0	348	-348
5	0136	사료	0	342	-342
6	6181	합금철	32	257	-225
7	0222	가금육류	0	204	-204
8	2511	펄프	0	201	-201
9	0191	천연섬유원료	0	135	-135
10	0151	커피류	0	111	-11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반도체(메모리)		
HS Code	8542.32	수입액('20/US\$백만)	1,042.9
수입관세율(%)	0~8%	대한수입액('20/US\$백만)	714.5
선정사유	한국은 브라질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 시장점유율 69%로 1위를 차지함		
시장동향	컨설팅 업체 IDC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반도체 공급 대란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17.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경쟁동향	2020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2.42% 감소했으나 여전히 점유율이 69%에 달함 대만과 중국의 점유율이 각각 13%와 11%로 2, 3위를 차지하고 있음		
진출방안	엘렉트롤라 쇼(Eletrolar Show) 등 남미 주요 B2B IT 가전전시회 참가를 통해 대 브라질 비즈니스 기회 발굴		
품목명 2	진단용 시약		
HS Code	3822.00	수입액('20/US\$백만)	557.3
수입관세율(%)	0~2%	대한수입액('20/US\$백만)	95.0
선정사유	코로나19, 지카 바이러스 등 브라질의 전염병 증가에 따라 혈액이나 소변 등을 통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시장동향	열대성 기후를 보유한 브라질은 모기로 인한 전염병이 자주 창궐하는데 주요 전염병 발생 지역인 북부 및 북동부에는 검사 장비 및 진단 시약 등이 부족함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초 진단용 키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백신접종률이 높아진 2021년 중후반까지도 높은 수요를 보임 브라질 보건부는 여러 번의 임시법안을 통해 수입 제품에 대해 면세/감세 혜택을 부여함. 향후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이며 이에 진단키트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경쟁동향	2020년 브라질 시장에서 동 제품 한국산 점유율은 17.04%로 2위 차지. 한국산 제품 점유율은 2019년 대비 1,340%나 증가함 점유율 1위는 미국(33.12%), 3위는 독일(15.39%)		
진출방안	브라질 공공계약사 등과 협력하여 PDP(Productive Development Partnership) 정책을 통해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모색		
품목명 3	화장품 (스킨케어)		
HS Code	3304	수입액('20/US\$백만)	163.2
수입관세율(%)	18	대한수입액('20/US\$백만)	3.0
선정사유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화장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라질 화장품 산업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임 스킨케어(HS 3304.99) 분야에서 브라질 시장은 세계 8위며 2020년 매출은 134억 헤알(약 27억 달러)에 달함 스킨케어 제품 연 매출은 2024년까지 매년 6% 성장해 180억 헤알(약 36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		

시장동향	<p>소비자들은 인플루언서들 덕분에 점점 피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용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 시작함 백신접종 확대로 야외활동이 늘어나 소비자들은 피부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 2020년 마스크팩 소비는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어남</p>		
경쟁동향	<p>2020년 브라질 스킨케어 제품 수입은 1억 2,000만 달러로 점유율은 프랑스(31.56%), 미국(11.39%), 칠레(9.76%), 스웨덴(9.54) 순임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2.31%로 11위를 기록</p>		
진출방안	<p>화장품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은 브라질 소비자의 피부타입에 맞는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함 뷰티페어(Beauty Fair), FCE 코스메티크 에스테티카(Cosmetique, Estetica) 등 박람회 참가 브라질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유지’ 및 ‘정밀한 시장분석’이 필요 높은 수입관세, ANVISA 등 인증비용 때문에 수입산 제품은 원가보다 2~3배 비싸질 수 있음. 브라질 로컬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 및 제품성능 향상이 필요함 록시땅 등 많은 다국적 기업은 브라질의 천연 화장품 원료 확보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브라질 내 공장을 설립함</p>		
품목명 4	의료기기 (초음파 영상기기)		
HS Code	9018.12	수입액('20/US\$백만)	84
수입관세율(%)	0~14	대한수입액('20/US\$백만)	22
선정사유	<p>브라질은 2억의 인구를 기반으로 중남미 최대 보건의료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최근 대 브라질 초음파 영상진단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2020년 한국의 대브라질 의료기기 수출액은 8,400만 달러에 달함</p>		
시장동향	<p>브라질은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며 특히 첨단의료기기는 자체 기술로 생산이 어려워 상당량을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함 필립스(Philips), GE 등 서구 의료기기 회사들은 브라질 현지에 공장을 운영하나 첨단기술이 필요한 제품은 수입함 2020년 브라질의 의료기기 수입은 전년대비 12.9% 증가한 62억 달러를 기록함 IT 기술 고도화, 보건소 신설/증설, 사물인터넷 등 기술 발달은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 성장을 견인함</p>		
경쟁동향	<p>2020년 브라질의 의료기기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23%), 미국(17%), 독일(13.7%) 등이며 한국의 점유율은 3.8%를 기록함 2020년 브라질의 초음파 영상기기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1위), 한국(2위)이며 각각 3,177만 달러(37.86%), 2,186만 달러(26.05%)를 수출함</p>		
진출방안	<p>전시회 참석을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시장 정보 파악 오스피탈라르(HOSPITALAR)는 중남미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이며 중남미 전역의 의료기기 바이어를 발굴하기 적합함</p>		
품목명 5	자동차 부품 (기어박스)		
HS Code	8708.40	수입액('20/US\$백만)	1,829
수입관세율(%)	0~18	대한수입액('20/US\$백만)	286
선정사유	<p>2021년 1~8월 기준 기어박스는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품목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음. 2020년 기준 브라질 기어박스 수입 중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에 이어 2위임 2022년에는 코로나19 완화로 브라질의 자동차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p>		

시장동향	자동차부품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로 브라질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2021년 자동차 시장은 2020년 대비 14.6% 상승할 것으로 보임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자동차 수요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자동차 기어박스 등 우리기업의 수출이 확대될 여지가 있음
경쟁동향	2020년 브라질 자동차 부품 수입국 순위는 중국, 미국, 독일 등 순임. 한국의 점유율은 5.7%로 6위에 위치함 자동차 부품회사 공장들은 자동차 공장이 많이 위치하고 수요가 많은 상파울루, 미나스제라이스주에 밀집되어 있음 Bosch, Continental, Dana, Delphi 등 글로벌 회사들이 브라질에 있으며 한국의 만도, 모비스 등도 브라질에 공장을 운영함
진출방안	브라질 현지 완성차 기업들과 글로벌 파트너랑(GP) 사업 추진 오토맥 자동차 부품 전시회 한국관 참여 등을 통한 바이어 및 파트너사 발굴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게임 서비스
선정사유	브라질은 세계 게임 시장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 가장 큰 시장임 Comscore사의 디지털 게임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전자 게임 시장은 최근 수년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 사용자의 약 70%에 해당하는 8,400만 명이 전자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동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사람들은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월평균 9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남.
시장동향	코로나19로 사회적 격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브라질에는 전자 게임(Electronic Game)을 즐기는 인구가 대폭 늘어남. 전자 게임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에 힘입어 E-sports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겨남. E-sports는 일반인은 물론 기업이나 심지어 프로축구 팀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함 현재 브라질 대형 채널에서는 프로게이머가 참가하는 국내외 대형 이벤트가 생중계되는 등 나날이 E-sports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음. 컨설팅업체 GFK에 따르면, 2020년 1월~8월 사이 브라질에서 전자 게임용 콘솔 판매는 34% 증가함. 게임에 최적화된 사양을 보유한 노트북의 경우, 달려화 대비 헤알화 환율 상승으로 평균 판매가가 4,400헤알에서 5,900헤알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75% 이상 늘어남.
경쟁동향	콘솔 게임의 경우, 일본의 Nintendo의 Nintendo Switch와 Sony의 PS4, 그리고 Microsoft사의 Xbox가 시장을 양분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회사들은 게임 콘텐츠를 배포하며 진출하였으며, 배틀그라운드, 서머너즈 워, MMORPG 장르의 게임이 많이 진출함
진출방안	브라질 현지 게임 회사를 통한 브라질 시장 진출방안 모색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해 Steam과 같은 멀티플레이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게임 시장과 모바일 게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함

품목명 2	IT 서비스
선정사유	컨설팅 업체 IDC 조사 결과에 따르면 브라질은 세계 IT 투자 대상국 중 9위를 차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대부분의 산업 분야와 달리 IT 산업은 브라질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전망도 매우 긍정적임.
시장동향	컨설팅 회사 가트너(Gartner) 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IT 분야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약 30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되고 2025년에는 기업 간 거래의 80%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국가지리통계원 IBGE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브라질 경제는 전분기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 회복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기간 IT 산업은 5.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됨. 2021년 6월 IT 기술 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27.8%나 매출이 성장했으며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브라질의 MIT를 목표로 민간주도의 IT 전문 교육기관 설립 움직임도 있음.
경쟁동향	브라질 시장에는 TOTVS, Brasoftware e Stefanini 와 같은 기업이 주목받고 있음 글로벌 플레이어로는 DELL, Microsoft, Cisco e Algar Tech(Algar Telecom 지회사)가 있음
진출방안	Futurecom와 같은 기술 박람회 참가하여 현지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현지 기업들과 네트워킹 필요
품목명 3	물류 서비스
선정사유	브라질의 경우 물류비용은 높으나, 제3자 물류비중은 낮은 편으로,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
시장동향	브라질물류협회(ABOL)의 조사에 따르면 협회에 속한 물류 기업의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2019년 23.8% 상승했다고 전함 브라질 물류협회(ABOL)의 조사에 의하면 브라질 물류 기업의 2019년 전년 대비 21% 상승하여 1,000억 헤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해당 분야는 브라질에서 최고 고용을 자랑하며 직간접적으로 약 150만 명을 고용 중임 Rappi, Log와 같은 물류 유통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발전하면서 물류 운송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임
경쟁동향	DHL과 같은 외국계 물류 업체 진출 다수의 물류 오퍼레이터, 운송 업체, 보관 업체 등이 존재 Rappi, Log와 같은 스마트 물류 운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등이 영업 중
진출방안	현지 물류 업체와 제휴를 통한 브라질 시장 진출방안 모색
품목명 4	콘텐츠 (애니메이션)

선정사유	한류 확산의 영향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시장동향	브라질에는 테마파크나 놀이시설이 많지 않아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임. 브라질에도 어린이용 캐릭터가 있으나 디자인이나 내용이 진부한 편이며 특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부모나 어린이가 함께하는 공간이 부족해짐. 최근 브라질 한국 문화원에서 열고 있는 핑크퐁 원더스타 전시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아기 상어 노래와 캐릭터 체험을 위해 연일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음.
경쟁동향	디즈니 만화 영화 캐릭터 등 다수의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다양한 상품에 도입됨 최근 상파울루 시내에는 Jurassic Park를 캐릭터를 사용한 햄버거 레스토랑이 개업함. 공룡 체험과 햄버거를 먹기 위해 많은 소비자가 레스토랑을 방문.
진출방안	브라질 방송 채널에 콘텐츠 공급을 통한 진출 쇼핑센터, 레스토랑 등과 협업하여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테마로 하는 공간 구축 방안 모색.
품목명 5	교육서비스
선정사유	2억 인구를 보유한 브라질 교육 서비스는 시장 규모 대비 품질이 낮아 높은 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평가 브라질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교육 서비스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
시장동향	브라질국립통계원(IBGE)에 따르면 브라질 경기 침체기 (2013~2017) 동안 브라질 국내 기업 수가 6.73% 감소하였지만, 교육 분야 기업은 오히려 37.5% 증가함 2018년 브라질 교육부는 원격수업에 관한 법안을 개선하고 정부는 원격수업 가능 시간을 최대 40%로 늘렸음. 2010년 이후 대학 진학률이 매년 6% 증가하고 원격수업은 매년 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경쟁동향	Kroton, Estacio, Objetivo 와 같은 브라질 대형 교육 기업이 존재하며 Laureate, Devry 등 미국 교육그룹이 브라질에 진출해있음.
진출방안	교육기업의 인수 합병을 통해 브라질 시장 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음.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브라질-우루과이 경제보완협정	브라질, 우루과이	1983-06-20	1985-10-16	기체결(발효 중) *ACE02
메르코수르- ALADI 관세특혜 협정	메르코수르, ALADI	1984-04-27	1984-07-01	기체결(발효 중) *APTR04
브라질-아르헨티 나 경제보완협정	브라질, 아르헨티나	1990-12-20	1990-12-20	기체결(발효 중) *ACE 14
메르코수르	메르코수르, 칠레	1996-06-27	1996-10-01	기체결(발효 중) *ACE 35
메르코수르-볼리 비아 경제보완협 정	메르코수르, 볼리비아	1996-12-17	1997-02-28	기체결(발효 중) * ACE 36
메르코수르-팔레 스타인 자유무역 협정(FTA)	메르코수르, 팔레스타인	2011-12-20		미발효
브라질-멕시코 경제보완협정	브라질, 멕시코	2002-06-03	2003-05-02	기체결(발효 중) * ACFI
메르코수르-멕시 코 경제보안(자 동차) 협정	메르코수르, 멕시코	2002-07-05	2006-01-05	기체결(발효 중) *ACE 54
브라질-기이아나 경제 협정	브라질, 기이아나	2001-10-29	2004-05-31	기체결(발효 중) *PSA(Partial Scope Agreement)
메르코수르-콜롬 비아/에콰도르 /베네수엘라 경 제보완협정	메르코수르, 콜롬비아, 에콰도르/베 네수엘라	2004-10-18	2005-02-01	기체결(발효 중) *ACE 59
브라질-수리남 경제보완협정	브라질, 수리남	2005-04-21	2006-07-26	기체결(발효 중) *AAPA25TM41
메르코수르-이스 라엘 자유무역협 정(FTA)	메르코수르, 이스라엘	2007-12-18	2010-04-28	기체결(발효 중) * FTA
메르코수르-페루 경제보완협정	메르코수르, 페루	2005-11-30	2006-02-06	기체결(발효 중) *ACE 58
메르코수르-쿠바 경제보완협정	메르코수르, 쿠바	2006-07-21	2003-07-02	기체결(발효 중) * ACE 62

메르코수르- SACU 무역특혜 협정	메르코수르,SACU	2008-12-15	2016-04-01	기체결(미발효) * ACP
메르코수르-인도 무역특혜협정	메르코수르,인도	2004-01-25	2009-06-01	기체결(발효 중) * ACP
메르코수르-이집 트 자유무역협정 (FTA)	메르코수르,이집트	2010-08-02	2017-09-01	기체결(발효 중) * FTA
메르코수르-콜롬 비아 경제보완 협정	브라질,콜롬비아	2017-07-21	2017-12-20	기체결(발효 중) * ACE 72
메르코수르(회원 국간 경제보완협 정)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 파라 과이	1991-11-29	1991-11-29	기체결(발효 중) * ACE18
브라질-파라과이 자동차 무역 협 정	브라질, 파라과이	2020-02-11	2020-09-28	기체결(발효 중) * ACE 74
브라질-베네수엘 라 경제보완협정	브라질,베네수엘라	2012-12-26	2012-12-31	기체결(발효 중) * ACE 69

<자료원 : 대외무역시스템 (Siscomex) *협정 종류 >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메르코수르-미국 자유무역협정 (FTA)	미국	2005년 12월 아르헨티나 Mar del Plata 정상회의 이후 중단됨.	
메르코수르-GCC 경제보완협정	GCC	현재 협상 재개 준비 중임.	GCC: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등 6개국
메르코수르-EU 자유무역협정 (FTA)	EU	2004년 10월 이 DDA 협상과 연 계돼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2010년 하반기 협상 재개 후 다시 잠정 중단. 2013년 FTA 체결을 희 망하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EU와 의 대화 재개됐음. -이후 농축산업, 자동차 등 양측의 주요 산업 분야에서의 조율을 거쳐 2019년 6월 말 메르코수르는 EU와의 FTA 협상 체결에 합의함. - 보우소나루 정부의 아마존 지역 삼림 훼손 등 환경 문제로 인해 EU-메르코수르 FTA는 현재 답보 상태임	

메르코수르-SACU-인도 무역특혜 협정	SACU, 인도	2007년 10월 제2차 인도-브라질-남아공 정상회담 시 룰라 대통령이 제안함.	SACU: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등 5개국
메르코수르-캐나다 자유무역협정 (FTA)	캐나다	2010~2012년 메르코수르-캐나다 FTA 논의가 시작됐으며, 2016년에 협상 공식 선언함. 2018년 3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1차 협상 열림.	
자유무역협정(FTA)	싱가포르	2018년 5월 메르코수르와 싱가포르 대표단이 서울에서 만나 FTA 협상 가능성 모색	
무역협정(TA)	한국	2017년 3월 한국과 무역협정 대화 재개를 발표하였으며 관세감면 품목 리스트 작성 단계를 거쳐, 2018년 5월 무역협상 개시를 선언함. - 2018년 9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1차 공식협상이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림. - 2019년 7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3차 협상이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림. - 2020년 2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5차 협상이 우루과이에서 열림 - 2021년 6월에는 6차 협상(화상회의), 8월 30일~9월 3일에 7차 협상(화상회의)이 개최됨. 가장 최근에 열린 7차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위생 검역(SPS) 관련 협상이 진행됨.	
브라질-미국 무역협정	미국	2020년 10월 미국과 브라질 정부는 미국이 브라질 에너지, 통신 인프라 프로젝트에 1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 (ATEC-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을 체결함. - 이를 계기로 추후 양국간 FTA 체결도 기대하는 분위기였으나 통상 전문가들은 다자간 협력을 선호하는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양국 간 협상이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 브라질은 2011년부터 미국과 경제협력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나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으로 2019년 3월 협상을 재개함.	

<자료원 : 대외무역시스템 (Siscomex) >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과거에는 자유수입, 사전 수입 승인, 수입 금지로 구분했으나 2006년을 기준으로 분류 방법이 변경됐다. 정부 승인이 필요한 품목의 리스트는 DECEX(대외교역국)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 무역관세집(Tarifa Externa Comum: TEC)에서 해당 품목 옆에 'E'라는 표시와 함께 하단에 관련 법규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또한, 수입금지 품목에는 품목 옆에 'P'라고 표시했다.

수입금지는 주로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취하는 조치이며 수입금지 품목 수는 많지 않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금지 품목은 중고품으로 중고차, 의류 등의 국내 반입은 거의 불가능하나, 일부 중고 기계의 경우 타당성이 인정되면 수입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브라질 정부는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로 수입되는 중고 기계나 설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 반덤핑 규제 품목

- 2021년 9월 기준 브라질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6건으로, 모두 반덤핑 조치이다.

니트릴 고무(NBR) HS Code 4002.59.00

버스 및 트럭 용 타이어(Pneumatic Tires for Trucks and Buses) HS Code 4011.2090

승용차용 타이어 (Tire) HS Code 4011.1000 * 현재 대 한국 규제는 2025년 1월 16일까지 중단된 상태

나일론사 (Nylon Synthetic Filament Yarn) HS Code 5402.3111 / 5402.3119 / 5402.4523

평판 압연 제품 중 후판(Heavy Plate Steel) HS Code 7208.5100 / 7208.5200

압연 실리콘 철강 (Flat-rolled Product Silicon Steel) HS Code 7225.1900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무역서류 전산화 시스템(SISCOMEX)

1997년 1월 브라질 대외무역국(SECEX)은 무역서류 전산화시스템(SISCOMEX)을 도입해 수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하였다. 수입 허가 현황은 SISCOMEX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동 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만이 이용할 수 있다.

2)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에 대한 행정규제

1998년 10월부터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에 대해 여러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위생요건, 품질요건, 안전요건 등의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일련의 행정조치가 발표되고 있다.

○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품목 확인 주소(허가 담당기관 및 관련 규제 확인 가능):

<http://www.siscomex.gov.br/informacoes/importacao/tratamento-administrativo-na-importacao/>접속

3) 통관지연

1998년부터는 송장 가격의 과소청구(Under-Invoicing)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자동수입허가 불가 제품에 대해 따로 허가를 받게 하는 조치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범위를 넓혔다. 비록 자동수입허가(Licença Automtica)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자동수입허가 불가 품목이 더 많다. 송장 가격의 과소청구(Under-invoic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관은 통관심사를 강화했는데 의심이 가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산정될 때까지 통관을 지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 보건부의 제품 등록기간

건강용품, 의약품, 음료 등은 보건부 위생감시국(Anvisa)에 제품 등록을 해야 수입 또는 판매가 가능한데 등록을 위한 자격 심사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ANVISA 허가 취득기간의 경우, 제품에 따라 6개월~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브라질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TBT

- 중고 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등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
- 전기 전자 및 IT 제품 통관 시 브라질 지식재산권협회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등록과정에서 수입제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지나쳐 영업비밀 침해가 우려됨.
- 브라질 도량형 및 품질 관리기관인 INMETRO를 통해 독자적인 자동차 타이어 인증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국제표준을 받은 자동차 타이어 업체 및 수입업체에 부담을 줌.
- 유사상품 존재 시 수입승인을 못 받는 등 IT 제품에 대한 장벽 존재
- 국제표준과 동떨어진 비합리적인 기준 적용, 자국만의 인증을 요구, 인증비용 과도책정 등 불필요한 비용 유발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원자재 사용을 강요함으로써 품질이 떨어지는 원자재를 사용해 전반적 품질 저하 초래(일정 비율이 상의 국산부품 이용법: PPB 존재)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브라질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의 일원으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외무역 공동관세(Tarifa Externa Comum: TEC)를 사용한다. HS Code와 마찬가지로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사용하는 NCM(HS Code)은 8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 적절한 분류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통관사 또는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대외무역 공동관세 과세 기준
 - 특별세율(Aliquota Especifica): 관세법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경우
 - 종가세율(Aliquota 'Ad Valorem'): 수입할 당시 자유경쟁의 조건 하에 거래될 수 있는 정상 가격에 부과되는 세율로, 보통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가격이 많다.
- 압수 또는 유기된 상품: 이러한 수입 상품들은 경매 처분되는데 그에 대한 과세기준은 경매 시의 낙찰 가격이다.

수입 관세(I.I.)는 연방정부에서 관장하는 특별세로, 남미공동시장 형성 후 대외공동관세율에 적용되고 있다. 브라질의 수입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돼 있다.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소해 오던 평균 수입 관세율은 2007년부터 점차 상승하기 시작해 2011년에 10.61%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브라질의 평균 수입 관세는 10.2% (확인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이다. 1990년 32%에 비해서 대폭 낮아진 수준이나 아직도 독일이나 영국(1.9%), 미국(2.9%)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으며 러시아(6%), 중국(8%) 등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원자재(8~9%)나 반가공품(11.9%)은 완성품(평균 15.8%)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 대외 무역 공동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상개발산업부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 <https://www.gov.br/produtividade-e-comercio-exterior/pt-br/assuntos/camex>
 - 위의 링크에 접속하여 'Tarifas Vigentes' 를 클릭하면 HS Code 별로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

6. 통관·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한국에서 출발한 브라질행 화물은 주로 산토스항을 통해 브라질로 들어온다. 브라질로 들어온 화물의 대부분은 트럭 등을 이용해 내륙지역으로 운송된다. 브라질의 주요 항구로는 산토스항(상파울루주), 파라나과(파라나주), 이타포아(산타 카타리나주), 포르토나비(산타카타리나주), 히우그란지(히우그란지주) 등이 있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2020년 기준 브라질 최대 무역항인 산토스항의 물동량은 일반화물 5,216만톤, 액체 벌크 7,567만 톤, 고체 벌크 1,877만 톤, 총 1억 4,660만 톤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했다. 2위 파라나과항의 경우 일반화물 1244만톤, 액체 벌크 761만, 고체 벌크 3,729만 톤, 총 5,734만 톤으로 전년대비 8% 증가했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브라질의 주요 국제공항은 상파울루, 리우 데 자네이루 등 주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 방문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항은 상파울루 주 인근 도시에 위치한 과를류스국제공항(GRU)이다. 그 밖에도 브라질리아의 브라질리아 공항(BSB), 상파울루 시내에 위치한 콩고냐스공항(CGH), 캄피나스시에 위치한 비라코프스공항(VCP), 리우 데 자네이루의 산토스드몽 공항(SDU) 등을 주요 공항으로 꼽을 수 있다.

○ 승객 및 운항 정보: 브라질 과를류스 공항은 2020년 한 해 동안 155.912회의 항공기를 운항했으며 공항이용객수는 2,032만 명을 기록, 전체 항공 시장의 20.44%를 차지했다. 2020년 브라질리아 공항의 이용객수는 785만 명, 콩고냐스 공항의 이용객수는 673만 명, 비라코프스 공항 이용객 수는 671만 명, 산토스드몽 이용객수는 496만 명으로 집계됐다.

3) 유의사항

브라질의 경우 공항·항만 시스템의 비효율성, 철도인프라 미비, 화물연대의 대규모 파업, 작은 세관 파업 등 낙후한 물류 인프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브라질 대부분의 항구는 화물의 야적장 보관에 대한 무상 기간을 제공하지 않으며 통관 후 반출될 때까지 보관된 기간만큼 각 터미널의 요율 체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특히, 세관이나 공항·항만노조 파업 기간에는 항구 CY와 공항창고 통관이 장기간 지연돼 상당한 PORT 부대비용 및 컨테이너 체화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노조나 세관 공무원의 파업 조짐이 보일 경우 되도록 공공항구나 공항보다는 상대적으로 항만 노조의 영향력이 덜하고 세관원의 파업 동참률이 낮은 내륙의 사설 보세창고로 이동해 통관하는 것도 시간 및 비용을 단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기타 참고사항

브라질과 아시아를 운행하는 컨테이너 해운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정상시의 4~5배까지 인상된 운송료를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이전 브라질 - 중국 해상운임은 컨테이너 당 2,000달러 안팎이었으나, 현재는 10,000달러까지 요구하는 해운사도 있다. 따라서 실제 비용에 대한 정보는 해운사와 운송 전 확인이 필요하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통관

수량이 샘플 정도의 수량이거나 수량이 적을 때, 또는 세법상의 금액을 약간 초과했으나 인수화물로 통관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브라질 약식통관은 간단한 수출입 신고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신고서에 기입된 정보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며 필요할 경우 정부의 통제, 환율규제 등이 적용된다.

2) 정식통관

상품이 브라질에 반입되면 브라질 관세법을 적용받게 되며, 내국물품화를 위한 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일단 도착한 화물은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해 보세창고에 보관된다. 수입자 또는 통관사는 수입신고(Declaração de Importação: DI)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입신고는 SISCOMEX(전자무역시스템)를 통해서 하며 수입세(Imposto de Importação), 공업 제품세(IIPI), SISCOMEX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모든 세금 및 비용 납부가 완료되고 화물 검사 및 화주 확인이 끝나면 연방세무국은 SISCOMEX를 통해 수입면장(Comprovante de Importação)을 발급하며, 이것으로 통관이 완료된다.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입허가증(LI), 선하증권(Conhecimento de Embarque),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이며 각 화물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다. 브라질 국제무역부(Decex)의 특별관리를 받는 제품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물품들은 선적 전에 브라질 해당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수입허가서(LI)를 취득해야 한다.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중고품, 샘플, 기부품 등 무가상품, 연구용품, 군수품, 방사능 물질, 원유, 원유가공품, 환경 유해물질, 항공기, 백색가전 완제품 등) 들은 'SISCOMEX(전자무역시스템) 행정조치표'에 열거돼 있다.

3) 물품검사 및 보류 및 압류

수입신고를 완료하면 SISCOMEX는 자동적으로 세관반출을 위한 화물검사를 지시한다. 화물검사는 녹색, 황색, 적색, 회색 채널의 4가지로 구분한다. 자동통관인 녹색채널을 제외한 기타 세관검사는 수입자가 연방세무소에 직접 수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Verde(녹색채널)

- 자동통관 채널이다.
- 전시회를 비롯해 모든 반입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최적의 채널이다.

○ Amarelo(황색채널)

- 서류 정보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 Master Airway Bill, House Air way Bill 혹은 B/L, 상업송장 등 기본 서류 정보를 검토한다.

○ Vermelho(적색채널)

- 서류 정보 일치 여부 및 반입품을 검사한다.
- 반입품 정보와 서류상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 Cinza(회색채널)

- 서류 정보 일치 여부를 검사하고, 반입품을 세밀히 감정한다.
- 기본적인 절차는 적색채널과 동일하지만 반입물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4) 통관절차 흐름

수입상이 직접 통관 업무를 할 수도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서 통상적으로 공인 통관사를 지정해 통관을 의뢰하게 된다. 세관에 등록된 공인 통관사는 수입상으로부터 변호사 공증한 통관업무 위임장을 건네받아 이를 근거로 수입상을 대신해 수입품의 통관업무를 실시한다. 일반적인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수입품이 도착하면 수입상을 대신한 통관사가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서류 수취(통상적으로 2일 정도 소요됨) 한다.
- 도착일 기준 3일째 되는 날 통관사는 해상운송기금(해상 운송료의 25%)을 납부하고 관세 산정 및 통관 구비 서류를 준비한다.
- 그 다음 날에는 세관 창고료를 납부하고 세관에 다음날 실시될 수입품 검사 시간을 예약한다.
- 최종일에는 수입품 검사 및 산정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품을 통관한다.

통관 시 유의사항

-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 상업 송장: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매매계약내용을 이행했음을 밝히는 명세서이다.
 - 선하증권: 선주와 화주가 화물을 해당 선박에 적재했거나 적재할 것이며, 또 이를 통해 특정 조건 하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시해놓은 유가증권을 뜻한다.
 - 패킹리스트: 상업 송장, 선하증권과 같은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실무적인 상황에서 꼭 필요한 서류. 상업 송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며, 포장 내용물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나 가격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패킹리스트 미제출 시 벌금이 부과되는데, 상업송장 (C/I)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500헤알이 부과된다.
- 브라질의 경우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세관의 파업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는 오직 황색채널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관을 진행하고, 그 진행속도는 현저히 줄어든다. 브라질은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협상국 중 통관절차 및 기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국가로 분류된 적도 있다.
- 브라질 통관업무는 과정이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전문 통관사를 고용하는 편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복잡한 통관업무 때문에 언어 문제가 없는 브라질 고객들도 통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브라질에는 한인교포가 운영하는 통관 업체나 한인 통관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들도 있어, 포르투갈어 이해가 어려운 고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Turbo Cargo Brasil

주소	Av. Pres. Juscelino Kubitscheck de Oliveira, 660 - 46 - Centro, Sorocaba - SP, 18035-060
전화번호	(55-11) 2283-2439
이메일	contato@turbocargo.com.br
홈페이지	http://turbocargobrasil.com.br

○ America Internacional.

주소	Rua Boa Vista, 254 sala 1601 - Centro, Sao Paulo - SP, 01014-907
전화번호	(55-11) 3326-9090
이메일	contato@americai.com.br
홈페이지	http://www.americai.com.br

○ HYC Logistics

주소	Av. Paulista 777,6 andar, Sao Paulo
전화번호	(55-11) 2171-4400

이메일	contato@americai.com.br
홈페이지	http://hyclog.com.br/site-en.htm

◦ Star Cluster do Brasil Logistica

주소	Rua Jandiatuba 143, Sala 901, Vila Andrade, CEP 05716-150, Sao Paulo-SP,
전화번호	(55-11) 2387-2484
이메일	contato@americai.com.br
홈페이지	http://www.starcluster.com.br/

〈자료원 :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 조사〉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투자 정책

브라질은 1962년 발표한 외국인 투자법 4131호(Lei 4131)에 의거하여 외국 자본도 국내자본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브라질 내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분야는 법에 차별대우의 근거와 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브라질은 오래전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출범한 보우소나루 정부는 국내의 부족한 투자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브라질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은 연방법, 주법, 지방정부법의 규제를 받으며, 연방법이 브라질 전체의 내외국 투자를 관장하고 있고, 하위 법으로 주와 브라질리아 특구는 각각의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금융 및 기술지원,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법의 내용은 유사하나 동일하지 않으며 각주의 법은 해당 주에서만 적용되고, 시도 각각의 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 정부는 'Invest & Export Brasil'이라는 투자 수출 촉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동 사이트는 브라질 국내 및 해외의 투자 유치 및 사업 기회를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교부(MRE), 산업통상서비스국(MDIC), 농축산부(MAPA) 등 3개 기관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Invest & Export Brasil

<http://www.investexportbrasil.gov.br/>

산업통상서비스국(MDIC)은 또한 브라질이 유치한 투자 프로젝트 정보 통합 사이트 RENAI(Rede Nacional de Informacoes sobre o Investimento)를 구축하고 있다.

*RENAI

<https://www.gov.br/produtividade-e-comercio-exterior/pt-br/ambiente-de-negocios/competitividade-industrial/renai>

브라질 정부는 APEX Brasil(브라질 무역투자청)를 통해서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APEX Brasil

<https://portal.apexbrasil.com.br/>

2) 외국인 투자법 주요 내용

연방헌법과 외국인투자법에는 외국자본과 내국자본과의 동등대우를 명시하고 있다. 즉, 동등대우원칙에 따라 법에서 외국자본의 참여제한이나 특정요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1971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에는 브라질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50 MODULE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 시 면적의 1/4이상을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동일국가의 외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면적의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가능하며, 비 거주 외국인이라도 유산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브라질의 일간지 Valor에 따르면 1993년부터 외국인의 경우 기존 50Module만 소유 가능했던 농지가 이후 100Module까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이전까지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브라질 국적의 기업들 중 외국 투자 자본이 들어간 브라질 기업 또한 토지 소유에 대한 제재를 받기 시작하였다.

법률 제4131호 제1조는 3가지 형태의 외자 도입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업소유권 이전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외자의 도입형태는 4가지이다.

- ① 자본재, 기계, 설비를 통한 직접투자
- ② 금융, 통화자금을 이용한 직접투자
- ③ 차관 및 기타 자본시장을 이용한 간접투자
- ④ 산업소유권 이전을 통한 투자

투자인센티브

1) 조세 감면

정부 인센티브 방식은 주로 조세 감면(Tax Reductions & Exemptions) 등의 형식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금융대출(Subsidised-Rate Loan Financing) 등이며, 현금지원 방식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공한다. 연방정부의 투자인센티브는 수출 증대, 국내 민간기업의 투자원조 등 간접적인 투자인센티브의 형태를 띤다. 금융자원이 부족한 탓으로 원칙적으로 현금 원조보다는 대출금리의 특별인하(Subsidized-Rate Loan Financing)나 조세감면(Tax Exemptions & Reductions)의 형태를 보이며 공장 건설이나 기계 구매 등에 대한 지원도 적지 않다.

- 소득세, 사회 기여세(PIS/COFINS) 조기 환급
 - 기계 구입 시 납부한 PIS/COFINS를 12개월 걸쳐 분할 환급(과거에는 세금 납부액에 상당하는 크레딧을 부여해 납부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사용 유도), 영구조치
- 수출업체 대상 자본재 구입 시 조세 감면(RECAP)
 - 수출업체가 국내시장 또는 수입을 통해 신규 기계 장비를 구입할 경우 사회기여세(PIS/COFINS) 면제 혜택
 - 동 혜택을 희망하는 업체는 수혜자격(국세청에 등록)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까지 면세 혜택
- IT, 반도체 개발 지원 프로그램(PADIS)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판매 시, 또는 자본재 구입 시, 기술소프트웨어 사용 비용 해외 송금 시에 부과되는 법인 소득세(IRPJ), 공업세, 사회기여세 등 감면 혜택
- 국내 생산 없는 기계 장비 대상 수입세 감면(*남미 공동 관세 적용 예외 품목(Ex-Tarifrios))
 - 자본재, 컴퓨터 정보 통신 제품 수입세 일시 감면: 14% → 2%
 - 수혜 조건은 해당 품목의 브라질 국내 생산이 없어야 하며 국가 산업개발 정책에 부응하는 품목이어야 함.
 - 유효기간은 적용일로부터 최대 2년간
- 소규모 업체 대상 조세제도 간소화(Simples Nacional)
 - 초소업체(ME) 또는 소규모 업체(EPP)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연방세(CSLL, PIS, COFINS, IPI, INSS), 주세(ICMS), 시세(ISS) 등

을 통합해 간소화.

- IT 제품 관련 인센티브(Lei do Bem)

- R&D 업종 지출 경비에 부과되는 CSLL(사회기여세) 감면, R&D 용도로 기계 장비 구입 시 공업세 감면, 기술 이전 관련 소득세 감면

2) R&D 사업 지원: 기술혁신인센티브(INCENTIVOS À INOVAÇÃO TECNOLÓGICA)

브라질 정부는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혁신 인센티브제도는 과학기술부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1) 산학협력, (2) 과학기술연구원들이 기술혁신과정에 좀 더 참여하도록 하는 것, (3) 기업이 기술혁신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기술혁신 인센티브는 산학협동을 통한 R&D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과학기술부가 주도하고 있으나 일부 개발부의 정책과 중복되기도 한다. 기술혁신인센티브제도는 기술혁신법(Lei de Inovação), 연구개발 촉진법(Lei de Bens), 정보진흥법(Lei de Informática)가 서로 연계돼 운영된다.

3) 브라질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크게 수출기업, 특별 장려산업, 저개발지역 투자 등의 경우에 제공된다.

- 일반적인 투자 인센티브

하이테크 분야, 정보통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기업이 연구개발에 수익의 5% 이상 투자하면 이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고, 기술개발 관련 기자재 구매 시 공산품세(IPI)를 면제해주는 등의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산업별 투자 인센티브

브라질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 우선산업은 농업, 중공업, 제철, 조선, 화학, 제지, 어업, 임업, 관광업 등이며, 정보통신업종은 정보산업진흥법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투자 인센티브를 수혜받을 수 있는 지역은 북부 아마존지역, 북동부 저개발지역,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수출가공무역지대(ZPE)로, 연방 소득세를 10년간 면제해주거나, 주(州) 유통세(ICMS) 일부를 용자해 주기도 한다. 투자 장려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브라질 북동부 은행(BNB) 등 지역개발은행의 중장기금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우선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국가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으로부터도 차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저개발 지역으로 고급인력이 거의 없어 단순조립 산업 등에만 적합하다.

- 수출 장려 인센티브

수출가공무역지대(ZPE)에 입주한 기업은 수입관세, 공업제품세, 사회보장기금세, 금융거래세, 상인해상운송개혁세 등을 면제받고,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투자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가 운영하는 투자정보 시스템 RENA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다.

4) 투자 인센티브 지급절차

외국 투자기업에 부여되는 가장 일반적인 인센티브는 ICMS(유통세), ISS(서비스세), IPTU(토지세) 등의 감면 혜택이다. 이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투자지역 시정부와 접촉해 감면율, 인센티브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조율해야 한다. 투자 인센티브는 시정부 재량으로 지급 범위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후보지 시정부 투자 담당관을 찾아 인센티브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현대 자동차 공장이 소재한 Piracicaba시의 경우는 시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업체에 기본적으로 토지 무상 제공, IPTU(토지가옥세) 면제, 공장 건축 기간 중 ISS(서비스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지역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시정부와 직접 접촉해야 한다. 정확한 투자 규모, 고용 창출 효과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 시정부로부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투자 인센티브 적용사례

- 투자 형태: 단독투자
- 투자 지역: 상파울루 주 빠라시까바 시 이따빠루 지역
- 사업 내용: 라이신(사료 첨가제) 생산
- 착공일: 2006년 3월 21일, 현재 가동 중
- 투자내용
 - 투자 규모: 공장 건축 2억 1,300만 헤알, 2015년까지 총 5억 달러 투자(자본금: 6,000만 달러)(2015, 2021기준 최신 자료)
 - 입지: 상파울루 주 빠라시까바 시 이따빠루 지역, 제랄도 바호스 고속도로(SP-304)와 8분 거리
 - 공장 건설기간: 약 18개월(연인원 1,400명, 2007년 9월 완공)
 - 고용 규모: 1차 약 250명, 2015년까지 총 2,000여 명
 - 공장 규모: 대지 98만㎡, 건물바닥 면적 약 5만㎡
 - 생산물: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인 리지나(lisina)를 연 5만 7,700톤 생산(사탕수수에서 채취)해 조류와 돼지들의 사료로 판매될 예정. 영업 첫해 매출 목표는 1억 달러이며, 이 중 70%를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임.
- 이 공장은 CJ의 인도네시아, 중국 공장과 함께 CJ의 전 세계 82개 지사 중 세계 3대 바이오 거점이며, 생산 규모는 CJ 중국 공장과 비슷한 하루 170카트(Carreta) 수준임. 모든 생산품은 산토스 항구를 통해 운반됨.
- 투자 인센티브
 - 주정부는 투자 인센티브와 판매 전략에 협조를 약속하고, 고속도로에서 공장 지역까지 약 175만 달러를 들여 약 3km 구간을 고속도로화. 또한, 공장 가동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회사(comgas)는 약 2,200만 헤알을 들여 19km에 달하는 가스송수관 공사를 실시.

제한 및 금지(업종)

원칙적으로 브라질에서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반되지 않는 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는 없다. 투자제한 분야는 국내 텔레그래프 및 우편 사업, 원자력, 수력, 지열 발전사업, 통신사업, 방위산업 등으로 여타 국가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분야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음은 외국인의 자본참여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분야이다.

- 지하자원, 광산, 기타 광물 자원 및 수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 투자를 위해서는 자원 에너지부 (Ministerio das Minas e Energia)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석유 자원과 천연가스의 탐사와 개발
 - 연방정부의 독점사업분야임.
- 항공·우주산업
 - 연방헌법상 외자 참여 금지
- 핵 에너지개발
 - 연방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권 조항(제21조 23항)에 포함돼 있음.

- 연안수상운송업
 - 브라질에서 건조돼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75% 이상을 브라질 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함.
- 언론 분야 TV, 라디오 방송, 신문사·잡지 또는 기타 발행물
 - 소유나 경영에 대한 연방 헌법(제222조 1항)상의 제약이 있음(신문, 잡지 등). 언론사와 라디오 방송사 자본과 의결 주식의 최소 70%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브라질 출생자 또는 10년 이상 된 브라질 귀화인에 속해야 함.
- 케이블 TV
 - 외자는 의결권의 49%까지 허용
- 농목업이나 산림 소유 및 국경지대
 - 외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에 종사해 관련 토지를 소유할 경우,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관련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법률 제5709호(1971.10.7.)
- 국내 항공운송업
 - 국내 항공사에 대한 외자 참여는 의결권 주식의 25%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됨. 임원의 3분의 2 이상이 브라질 시민이어야 함.
- 육상화물운송(Road Cargo Transportation)
 - 육상화물 운송회사에 대한 외자 참여는 투표권 있는 자본의 1/5을 넘어서는 안 됨.
- 금융업
 -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하나 2018년 핀테크 분야 투자는 규제가 대폭 완화됨.
- 우편·전보서비스
 - 연방헌법에(헌법 제21조X) 연방 정부의 독점사업으로 규정
- 보험
 - 1996년부터 외국인 투자가 허가됨. 보험감독원(SUSEPE)의 사전허가 필요
- 보건서비스 분야
 - 연방헌법(제199조 3항)에서 외국자본이나 외국기업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 왔으나 2015년부터 허가됨.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
지대**

1) 마나우스 산업단지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가 위치한 서부 아마존 지역은 아마조나스(Amazonas), 아끄레(Acre), 혼도니아(Rondonia), 호라이마(Roraima) 등의 4개 주로 구성돼 있다. 각 주의 수도는 마나우스(Manaus), 리우 브랑쿠(Rio Branco), 포르투 벨류(Porto Velho), 보아 비스타(Boa Vista)인데, 이 중 마나우스는 동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법령 no 356/68과 법령 8.387/91을 통해 아마조나스 주 마나우스 시에 설치된 자유무역지대는 1990년 시장개방 이전까지만 해도 브라질의 최대 공업지대였으나, 원거리에 따른 물류비용과 경기둔화로 한동안 침체돼 있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 경기 회복과 함께 마나우스 지역 투자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는 공업, 농축산업, 상업 등 3개의 대형 전문 산업단지로 구성돼 있으며, 공업단지의 경우 현재 각종 첨단 기술을 보유한 6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수입 관세 및 공업세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기·전자, 오토바이, 해운, 생활용품 등 관련 기업들이 주로 진출해 있으며, 다수의 정보통신제품 업체도 입주해 있다. 브라질 최대 수출자유무역지대인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의 조세특혜 제도는 연장된 종료 시기였던 2023년에서 다시 50년이 연장돼 2073년까지 발효되었다. 종전 특별법의 시효는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므로, 성숙기를 거쳐야만 하는 산업의 장기 프로젝트 도입과 다각화가 현실화되지 못해 특별법 시효의 연장으로 인해 보다 다양하고 많은 투자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관리국 Suframa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입주업체 정보를 비롯해 각종 유용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홈페이지: www.suframa.gov.br
- 주소: Av. Ministro Mario Andreazza, 1.424 - Distrito Industrial, CEP. 69075-830 - Manaus Amazonas
- TEL: (55 92) 3321-7000

- o 주요 혜택: 투자 인센티브는 SUFRAMA와 SUDAM을 통한 연방인센티브와 마나우스 주 상공관광국(SIC)을 통한 주 정부의 인센티브 및 마나우스 시의 인센티브로 나뉜다. 감세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면세를 적용한다.

- o 연방인센티브: 연방인센티브는 수입 관세(II), 공산품세(IPI), 소득세(IR), 사회기여세(PIS/PASEP), 사회보장세(CONFINS)의 감면으로 구성된다.

① 수입세(Imposto sobre Importacao - I.I.)의 감면

- 자본재를 포함한 외국산 상품이 내부소비를 위해 ZFM에 유입될 경우
- Amazonia Ocidental로 유입되는 합동부처령(Portaria Interministerial) 제300호(1996.12.20.)에 열거된 외산 제품에 대해 I.I. 면제
- 국내 판매를 위해 ZFM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중간재, 포장재 등의 수입 시 88% 수입세 감면

- 일정 요건을 갖추는 정보재의 생산 시 수입관세의 감면
- 일정 요건을 갖추는 자동차생산의 경우 수입 관세의 감면

② 공산품세(IPI-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Industrialised Product Tax)의 감면

- ZFM 생산품에 대한 IPI 면제
- ZFM에서 소모하는 외산품(자본재 포함)의 경우 I.P.I. 면제
- Portaria Interministerial nº 300/96에 열거된 외산품으로서 Amazonia Ocidental에서 소모되는 제품에 대해 I.P.I. 면제
- ZFM와 기타 Amazonia Ocidental에 유입되는 국산품에 대해 I.P.I.면제
- Amazonia Ocidental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목원자재와 식물추출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I.P.I. 면제

③ 법인소득세(IRPJ- Imposto de Renda de Pessoa Juridica; Income Tax)의 감면

- 법인소득세에 대해 최대 75%까지 감면. 그러나 이득에 대한 사회기여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은 이러한 조세감면을 자본유보(capital reserve)로 장부에 기입해야 하며 배당금(dividends)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회기여세(PIS/PASEP: SOCIAL INTEGRATION PROGRAM)와 사회보장세(COFINS: SOCIAL SECURITY FINANCING CONTRIBUTION) 감면

- 수입품과 기업 간 내부거래의 경우에는 PIS/COFINS를 면제한다. 역외지역에 완제품을 판매할 경우 3.65%(예외 있음)를 적용한다.

⑤ 수출세(Imposto sobre Exportacao- I.E.)의 면제

- ZFM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에 대해 수출세의 면제

- o 주 인센티브: 주에서 부여하는 조세 인센티브는 주 유통세(ICMS State Service Tax)를 경우에 따라 55~100% 환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조세 환급의 대가로 일정액의 교육 관광 진흥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p>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인센티브 - 10년간 건물. 토지세(IPTU- Imposto sobre a Propriedade Predial e Territorial Urbana) 면제 - 10년간 도시 정화 및 공공물 보존료 면제 - 10년간 사업 허가료 면제 <p>○ 브라질 정부, 마나우스 산업단지 세금 인센티브 범위 확대 법안(10,521호) 서명</p> <p>-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20년 10월 마나우스 산업단지 세금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하였고, 이를 통해 마나우스 산업단지에 투자진출하는 기업들은 공업세(IPI)를 면제신청할 수 있으며 통신기기 등에 대한 수입세(II) 감면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됨.</p>
--	--

산업단지

○ 마나우스 산업단지

규모	10,000 km2
위치	Av. Ministro Mario Andreazza, 1.424 - Distrito Industrial, CEP. 69075-830 - Manaus - Amazonas
임차료	업종별로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관리국 (SUFRAMA-Superintendência da Zona Franca de Manaus) ○ 전화: (55 92) 3321-7000 ○ 홈페이지: www.suframa.gov.br

〈자료원 : SUFRAMA〉

주요 지역별 여건

○ 상파울루(SAO PAULO) 주

- 면적: 248,222km²
- 인구: 45,919,049 명(2019년)
- 주도: 상파울루(Sao Paulo)
- 투자기구: 상파울루 주 무역투자청 Investe Sao Paulo (<https://www.investe.sp.gov.br/>)
- 주요 산업: 자동차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 금융업, IT 산업
- 비교: FIDES(Fundo Estadual de Incentivo ao Desenvolvimento Social) 사회발전촉진기금/ FIDE(Fundo Estadual de Desenvolvimento Economico) 경제발전촉진기금/ 최대 거치 10년에 12년 상환, 연리 5%의 금융

○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주

- 면적: 43,780.172km²
- 인구: 17,264,943명(2019년)
- 주도: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 투자기구: 리우 무역 투자 청 AgeRio (<https://www.agerio.com.br/institucional/>)
- 주요 산업: 농산업, 가축가공, 전자, 석유화학 등
- 비교: 금융-조세 인센티브, 기타 산업 분야별 인센티브, 조세 인센티브, 주령 제23012/97호, 주령 제24937/98호

○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주

- 면적: 586,522.122km²
- 인구: 21,168,791(2019년)
- 주도: 벨로오리젠티(Belo Horizonte)
- 투자 기구: 미나스제라이스 무역투자청 INDI (<https://www.indi.mg.gov.br/>)
- 주요 산업: 광물, 제철, 섬유, 비철, 농목업, 자동차산업, 자동차부품, 화학, 전자, BT, 정밀기계, 반도체 산업 육성 등

- 비교: FIND(Fundo de Incentivo Industrializaço) 산업촉진기금, PRO-INDSTRIA(주령 제38106/96호), PROIM(주령 제 38106/96호), FUNDIEST(O Fundo de Desenvolvimento de Indstrias Estratégicas) 전략발전기금, PROE-INDSTRIA(주령 제 40848/99호), PROE-AGROINDSTRIA(주령 제41840/01호), PROE-ELETRÔNICA(주령 제41021/00호)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53700.4	66584.9	59802.4	65386	24777.7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5900.75	19040.4	-16335.6	19031.5	-25808.4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54	8	227,658	63	221,823
2020	53	2	293,451	69	271,877
2021	47	7	556,748	55	539,49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2,500	4	910
제조업	42	4	187,987	45	183,254
도매 및 소매업	4	2	1,049	4	1,049
운수 및 창고업	2	0	3,000	2	3,000
정보통신업	1	1	762	4	862
금융 및 보험업	3	1	31,860	3	32,24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	500	1	5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13	5	745
제조업	33	0	267,378	46	245,174

도매 및 소매업	9	0	19,621	9	19,621
운수 및 창고업	1	1	300	1	300
정보통신업	6	0	607	5	505
금융 및 보험업	3	1	5,532	3	5,532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2	0	1,614	3	282
제조업	30	3	383,591	35	382,167
건설업	3	0	760	5	587
도매 및 소매업	2	2	198	2	91
운수 및 창고업	1	0	51,386	1	51,386
숙박 및 음식점업	1	1	198	2	198
정보통신업	4	0	306	4	306
금융 및 보험업	1	0	10,000	0	0
부동산업	2	0	107,695	2	103,47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1,000	1	1,0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한국수출입은행

진출연도	1993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업
취급분야	수출입금융 및 해외투자금융
모기업명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무역보험공사

진출연도	1994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업
취급분야	수출보험 및 수출보증
모기업명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산업은행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업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한국산업은행

○ KEB하나은행

진출연도	199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업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KEB하나은행

○ 우리은행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업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우리은행

○ 미래에셋대우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업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미래에셋대우

○ 삼성전자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기전자제품(컬러TV, 하드디스크, DVD, 오디오, 디지털카메라, 에어컨, 휴대폰,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냉장고, 세탁기 등)
모기업명	삼성전자

○ LG전자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컬러TV, VCR, 전자레인지, DVD, 에어컨, 모니터, 휴대폰, CDR, CDRW
모기업명	LG전자

○ (주)LG화학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유통
취급분야	석유화학 레진, 휴대폰 배터리
모기업명	(주)LG화학

○ 현대자동차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생산
모기업명	현대자동차

○ 현대모비스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모듈;범퍼
모기업명	현대모비스

○ 포스코

진출연도	197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Pallet(발리와 합작)
모기업명	포스코

○ CJ 제일제당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Lysine(동물사료용 단백질)

모기업명	CJ 제일제당
------	---------

○ 효성

진출연도	199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Spandex yarn. Chemical
모기업명	효성

○ 포스코인터내셔널

진출연도	198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유통
취급분야	WHOLESALERS, BROKERAGE
모기업명	포스코인터내셔널

○ 한국타이어

진출연도	199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유통
취급분야	타이어, 튜브
모기업명	한국타이어

○ 금호타이어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유통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금호타이어

○ 넥센타이어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도매유통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넥센타이어

○ 다솔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LCD부품
모기업명	다솔

○ 동국시스템즈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정보통신업
취급분야	Help Desk, Field Service, IT Infra 구축 및 유지보수, Data Center 관리, SAP 구축 및 유지보수, Web/모바일 개발
모기업명	동국시스템즈

○ 엘에스엠트론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기타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농업용 트랙터 제조
모기업명	엘에스엠트론

<자료원 :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 조사>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주식회사는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법인으로 투자한 주식만큼 회사경영에 책임 의무를 가지는 형태이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법인 법을 제6404호(1976. 12. 12.)를 통해 규율하는데, 이 법은 법률 제9457호(1997. 6. 5.) 및 법률 제10303호(2001.10.31.)에 의해 부분 개정됐다.

주식회사는 매년 회계결산과 주주총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또한, 주식회사는 회사 수익의 5%를 법정적립금으로 비축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유한책임 회사에는 없다.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간 법인 형태의 전환은 절차가 간단하고 큰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외국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둔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필요하며, 발기인은 창립주주로서 응모 자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2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각각 투자한 부분에 비례해 책임을 지는 형태로 유한책임회사(LTDA)는 주식회사(S.A.)와 함께 브라질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과거에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있어야 회사 설립이 가능했으나 2019년 개정된 법안에 따라 한명의 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인이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은 100% 단독투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둘 또는 그 이상의 법인,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법인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개인투자가 (3)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투자자로 지주 구성이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위한 법정 최저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만일 한국 기업이 본사 직원을 파견해 현지법인을 운영하려면 영주권을 소지해야 한다. 브라질 노동부(MTE) 산하 이민협의회(CNIG)에서 2015년 10월 21일부로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투자를 통해 영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이 50만 헤알을 투자하거나 둘째, 법인이 1인당 60만 헤알을 투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법인 투자의 경우 고용 창출 의무는 없으나, 개인 투자의 경우 고용 창출 의무가 있어 2년 내 최소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개인 투자의 경우 혁신, 기초·응용 연구, 과학·기술 투자 등 R&D 투자를 실시할 경우 최대 15만 헤알로 영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회사 경영인은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꼭 지정돼야 하며, 반드시 브라질 거주인이어야 한다. 지주경영인이 회사를 대리 경영할 경우에는 가급적 별도의 위임장을 통해 대리경영인을 선임하도록 정관상에 조치하는 것이 좋다.

○ 브라질 현지법인 설립 절차

- 브라질 현지 법인명을 확정하고 상업등기소에 기존 등록 여부를 확인
- 브라질 현지법인의 설립정관을 작성
- 브라질 현지법인에 출자하는 설립주주를 확정(법인명, 주소, 대표자 성명)
- 브라질 현지법인을 관리할 대표자(directors or officers)를 선정: 브라질 법상 브라질 법인의 관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파견되는 대표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임시대표를 지정
 - 설립주주의 브라질 대리인의 지정: 브라질 현지법인의 설립주주가 외국기업이나 해외거주 개인일 경우, 반드시 브라질에 대리인을 지정 필요. 대리인이 부재주주를 대리해 설립정관에 서명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변호사나 회계사를 통해 법인설립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주주의 현지 대리인 역할을 수행
 - 설립주주가 해외에 있는 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브라질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외국법인이 설립지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의 투자법인이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위임장(powers of attorneys - 'procuração'): 설립주주가 해외에 있는 소위 부재주주(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 회사 설립을 맡은 브라질 대리인(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한다. 위임장에는 등기소, 연방국세청, 중앙은행 등 관계기관에서 설립주주를 위해 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대리권을 명시해야 한다. 한국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공증사무소(Notary Public)의 공증을 받은 후(notarization) 브라질 영사관에서 영사인증(legalization by the Brazilian consulate)을 받아야 한다. 공증사무소에서는 위임장에 서명한 개인 또는 법인대표의 서명확인을 해주고, 영사관에서는 이러한 공증인의 서명을 확인하는 영사인증을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위임장에 서명하는 법인대표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법인대표와 동일해야 하며, 회사정관에 회사를 대표해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공증인은 위임장에 서명하는 자가 법인대표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법인등기부 등본(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quotaholder): 브라질 현지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설립지에 등기된 법인등기부의 사본, 또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을 영문으로 발급받는 것이 나중에 브라질에서 번역하기가 수월하다.

o 상업 등기소(Junta Comercial)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 상호 결정 이전 유사상호(商戶)검사 실시(Formulario Pedido de Busca)
- 소정의 검사료 납부필(법인 등록 서류(Ficha de Cadastro Nacional)): 'Cadastro Web'에서 작성 후 양식 다운로드
- 상업등기소 등록 요청 서류(Requerimento/Capa do Processo) 1부
- 법인등록 서류(Ficha de Cadastro Nacional) 양식1과 양식2 각각 1부
- 변호사 및 증인, 투자자 전원이 서명한 계약서(회사 정관: Ata de Constituição)

o 법인 설립 비용

- 법인 설립 비용은 회사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적게는 5,000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의 비용이 소요되기도 한다. 변호사나 회계사의 인건비 외에 통신비, 번역비, 복사비, 교통비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며, 통상 번역비와 등록비 외 법인 설립 관련 컨설팅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사

지사는 외국 회사가 투자자로서 브라질에 현지법인(incorporation of a Brazilian company)을 설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국 회사의 이름으로 브라질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사(filial estrangeira)의 설치는 긴급법 제2627/40호 (Decreto-lei n° 2.627, 1940. 9. 26. 제64조-73조)와 국가상업등록국(DNRC)의 지시 규범 제81호(Instrução Normativa da DNRC n° 81, 1999. 1. 5.)에 규정되어 있다.

외국법인의 지사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연방정부(상공개발부)의 허가(Authorization)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1) 브라질 거주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2) 지점자본금을 납입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허가기간은 보통 3~6개월가량 소요되며 최종적으로 연방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으로 발표된다. 대통령령과 기타 관련 문서들은 모두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그 사본을 해당주의 상업 등기소(Junta comercial)에 등기해야만 비로소 지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얻게 된다.

지사 설립은 그 허가조건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현지법인에 비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브라질에서의 지사 설립은 신중을 요하며 권장사항이 될 수 없다. 항공사 등 지사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의약품의 허가나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지사 형태로 브라질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거의 없다.

연락사무소

브라질에는 법적으로 연락사무소 방식의 투자 진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통신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며 시장 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p>1) 투자위험도 브라질은 고질적인 정치 불안과 환율 변동 폭이 크다는 점, 1차상품 의존도, 재정 불균형 등이 외국 투자 유치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S& P, Moody's, Fitch 등 3대 국제 신용평가회사 모두가 브라질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BB-"로 평가하고 있다. "BB-" 등급을 보유한 브라질은 단기 투자 시 비교적 불안하지 않은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정치 경제 불안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 장기 투자에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p> <p>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브라질에서는 우편 사업, 발전사업, 통신사업, 방위산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브라질 내 외국기업의 투자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가 필요한 분야는 차별대우의 근거와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합작회사의 경우, 외국기업은 최대 49%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합작 투자를 하는 경우, 회사의 규모에 따라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 등의 공유가 요구되기도 하는데, 이는 기업 한쪽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다. 특히 브라질 공기업의 경우 기술 이전을 합작 투자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작을 결정하기 전에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브라질은 관료주의적 행정이 만연되어 있어, 기업이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다. 따라서 합작 투자의 경우는 여러 사안을 두 업체가 함께 결정하고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결정권이 감소될 수 있으며, 법인 설립 기간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p> <p>3) 분쟁해결 브라질은 '투자 분쟁 해결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체결국이며 투자 관련 전문적인 상담 창구나 중재기관 등도 없다. 따라서 투자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들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를 통해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준비가 필요하다.</p>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법인으로 투자한 만큼 회사경영에 책임 의무를 진다. 주식회사(Corporation/S.A.)는 포르투갈어로 Sociedade Anonima(S.A)이며, 미국의 Corporation(Co.), 영국의 Public Limited Company(PLC)와 유사한 형태이다.

주식회사는 매년 회계결산(annual accounts)과 주주총회 회의록(minutes of shareholder's meetings)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는 회사 수익의 5%를 법정적립금(legal reserve)으로 비축해야 한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적립 의무가 없다.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법인형태 전환은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유한책임회사

브라질의 유한책임회사(LTDA)는 한국법상의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의 중간형태로 이해된다. 과거에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있어야 유한책임회사 설립이 가능했으나 2019년 개정된 법안에 따라 한명의 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해졌다. 외국 기업이 주로 선호하는 유한책임회사(LTDA) 설립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지역의 상업 등기소(Junta Comercial)에 법인설립등기, 법인등록번호 발급
- ② 연방 세무국(Receita Federal)을 통해 법인납세인 등록,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발급
- ③ 법인명의 계좌 개설
- ④ 중앙은행에 외자 등록
- ⑤ 주 세무국(Secretaria da Fazenda) 등록
- ⑥ 시청(Prefeitura Municipal) 등록
- ⑦ 노동부에 주재원 비자신청 등의 과정을 거침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MEI- Microempreendedor Individual)의 경우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소자본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한 책임회사와는 달리 개인 자산과 회사 자산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 파산 시에는 사업자 개인 자산까지 회사 부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채권발행이나 상장 등 재무적인 유동성이 없어 사업을 확대하려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Demarest Almeida Advogados

전화번호	(55-11) 3356-1800
주소	Av. Pedroso de Moraes, 1201, Centro Cultural Ohtake, Sao Paulo, SP, Brasil
홈페이지	https://www.demarest.com.br
이메일	mgkim@demarest.com.b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김민곤 변호사

◦ Tozzini Freire Teixeira e Silva Advogados

전화번호	(55-11) 5086-5000
주소	Rua Borges Lagoa 1328, 04038-904, Sao Paulo SP Brasil
홈페이지	http://tozzinifreire.com.br/
이메일	skim@tozzinifreire.com.b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김신재 변호사

◦ Machado, Meyer, Sendacze Opice Advogados

전화번호	(55-11) 3150-7000/3150-7
주소	Avenida Brigadeiro Faria Lima, 3144 - 11º andar CEP: 01451-000
홈페이지	https://www.machadomeyer.com.br/
이메일	mmso@mmso.com.b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조인희 변호사

◦ Mattos Filho

전화번호	(55-11) 3147-7600
주소	Rua Joaquim Eugeinio de Lima 447 - Jardim Paulista, Sao Paulo - SP

홈페이지	https://www.mattosfilho.com.br/
이메일	yelin.kim@mattosfilho.com.b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김예린 변호사

<자료원 :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브라질은 지속적인 외환거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외환거래가 자유로운 편은 아니다. 외국투자기업들은 브라질의 외환관리법 이자 외국인 투자법에 해당하는 법률 제4131호(1962년 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아울러 외환관리기관인 중앙은행(BACEN)의 기본규정들을 수시로 참조해야 한다. 국내 통화발행 및 유통 통화금액은 중앙은행만이 관리할 수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지표금리와 인플레이션 목표에 기초해서 국내 통화발행 및 유통통화 금액을 관리한다. 통화의 국외로의 유출입에 대한 관리는 국내 통화의 유통규정(모든 채무는 국내 통화만으로 정산)에 따라 중앙은행만이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브라질 내에서 외국 통화의 유통은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있지 않다. 브라질의 외환시장은 무역·금융 외환 시장(무역거래, 브라질 국내에서 외화 기준 투자, 브라질 거주자에 대한 외화 기준 대부 등) 및 관광외환 시장(당초 관광산업용으로 설치, 후에 다른 거래도 커버하기 위해 쓰임)의 2종류가 있었지만, 1999년 2월에 무역·금융 외환 시장으로 통합됐다.

환율은 공정 환율(Cambio comercial), 관광 환율(Cambio Turismo), 암시장 환율(Cambio Paralelo) 등으로 구분되며, 2021년 9월 24일 기준 환율은 1달러=5.3헤알이다.

* 공정 환율 : 중앙은행이 공시하는 환율로 수출입 등 무역 거래 시에 사용한다.

관광 환율 : 비행기 티켓, 해외 여행 상품 구매 시 적용되는 환율로 공정 환율보다 높다.

암시장 환율 : 정부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달러에 적용되는 환율이다.

외환 규제

외국 기업들이 부단히 변화하는 환율에 대응해 적절하게 금융자금을 보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브라질 거주인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외화를 기준 화폐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현지 투자기업들이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으며 외화표시 자산을 소지할 수도 없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화를 현지기업이 소지할 수도 없으며, 무역과 관련한 환계약도 중앙은행에서 지정하는 날짜 안에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에 대비한 헤징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에 기준으로 한 화폐가치 수정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 실행한다.

경우에 따라 중앙은행은 외화표시 국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금이나 경화 표시를 통해 헤징을 해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비용이 매우 높으므로 자주 이용되지는 않는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5.34 헤알(2021년 9월 24일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713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86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
-------------------------	-----	-------------------------	-----	-------------------	---

<자료원 : CATHO>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브라질에서 모든 피고용인은 노동 수첩을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 수첩에는 노동법에서 정하는 모든 고용관계를 기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고용인은 채용한 모든 피고용인에 관한 신상카드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록부는 반드시 노동부 산하 지역 노동부 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노동 기록부에는 모든 노동자의 명단과 외국인 고용자, 미성년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최초 채용되는 피고용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고용계약서에 명시)을 수습 기간으로 간주하여 이 기간에 기본 급여보다 낮게 지급할 수도 있다.

고용계약에 근거, 지역 노동감독국에서 발행한 노동 수첩을 모든 노동자는 항시 지참, 사용자는 노동대장을 비치하여, 매년 감독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수첩: 직종, 급여, 채용일, 계약 기간, 근무조건 등 명시
- 대장: 노동부 등록내용, 종업원 자격, 초과근무 및 근로시간, 휴가 등

채용 면접 시 기혼 또는 미혼 여부와 퇴직 당시 회사의 추천서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노동 수첩 등 고용 관련 서류와 건강진단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근로시간과 관련, 토요일 휴무를 위한 보충노동 시간 결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근무 개시 48시간 이내에 관련 기관 및 조합에 등록시켜야 한다.

근로시간

정상적인 주 근무시간은 44시간이고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 화이트칼라층은 대부분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월~금요일까지 근무한다. 그리고 일일 근무시간은 초과 근무를 포함 최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근무는 기본임금의 최소 50% 이상을 지급한다. 초과근무의 최대 시간은 10시간 이내에서 일일 근무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컨대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 48분이라면(주 5일 44시간), 일일 초과 근무시간은 최대 1시간 12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외에도 근무일을 기준으로 중식대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사무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루 20~45헤알 정도다. 추가로 출퇴근 교통비(공공요금 기준) 또는 주유대를 지원해야 하기도 한다. 참고로 중식대, 교통비 등은 급여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쿠폰, 적립카드 등 노동법에 따른 적합한 방법으로 지불을 해야 한다. 즉, 계산을 편리하게 하려고 해당 비용들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했을 때는 정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휴가

고용주는 1년 근무 후 연 30일의 유급휴가와 휴가보너스(월급+월급의 1/3)를 휴가 이틀 전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산 시에는 120일의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있으며, 임신 사실을 안 이후로 출산 5개월까지는 해고할 수 없다.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지만,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가 합석해 확인해야 한다. 조합 대표의 확인이 없는 경우, 임신부를 재고용하거나 퇴직 보상을 해야 하며, 출산 후에는 근무 개시와 동시에 건강 진단서를 청구해 두어야 한다. 부인이 출산할 경우, 남편은 5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2008년 7월 법정 출산휴가 기간이 4개월에서 201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률이 통과됐다. 단, 아직 6개월 출산휴가 실시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6개월 출산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지만, 일단 실시를 하게 되면 향후 모든 직원에게 6개월간 제공해야 한다.

참고로 출산휴가 동안의 급여는 회사 부담으로 매월 적립되는 사회보장세(INSS)에서 부담한다. 6개월간 출산휴가를 실시할 경우, 4개월은 사회보장세에서 지원되지만, 나머지 2개월분의 급여는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해고

해고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해야 한다. 자발적 퇴사를 제외한 회사에서 해고한 경우, 그동안 적립된 FGTS 금액의 40%를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 현지 직원 해고방법

브라질의 해고 제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는 한국과 거의 동일하며 CLT(브라질 노동법), 제482조에 정당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나와 있다. 정당 해고의 경우 고용주는 잔여급여, 13번째 급여의 미지급분, 유급휴가비의 미지급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CLT 제482조 정당해고 사유
 - 부정행위
 - 사내에서의 부적절한 자세 또는 업무에 부적절한 품행
 - 현재 고용된 회사와 경쟁구도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나 업무에 비효율적인 행동
 - 근로자의 형사처분 확정판결문의 공포
 - 업무처리에 대한 부주의 또는 과실
 - 습관적인 알코올 섭취 또는 업무 중 음주
 - 회사 기밀 누출
 - 기강 해이 또는 상사 지시에 대한 불복종
 - 업무 유기
 - 정당방위를 제외한 업무 중 발생하는 동일한 직위의 근로자에게 가하는 모든 인신공격 또는 물리적 가해
 - 정당방위를 제외한 업무 중 발생하는 상사에 대한 모든 인신공격 또는 물리적 가해
 - 습관적 도박
 - 행정절차를 통해 증명된 국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 해고하는 직원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상의 내용은 잔여급여 지급, 30일간의 사전해고 통보 기간, 13번째 급여 미지급분, 유급휴가비, 유급휴가 대비 1/3의 추가금, 고용 기간에 적립한 근속보장기금(FGTS) 총액의 40%에 해당하는 벌금 납부 및 FGTS 인출을 허가해야 한다.

근속 기간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한 해고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상의해야 하며, 사전 통보 기간도 근속 기간에 비례해 증가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 외 해고는 아니지만,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상기 혜택 중 사전 통지와 FGTS 40%의 벌금 규정을 제외한 다른 모든 혜택이 적용된다. 브라질의 노동 소송은 한국과 달리 노동법원을 통해서 진행된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

하며, 이 과정에서 현지 변호사가 퇴사한 근로자를 부추겨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소송을 하기 전 노동위원회의 중재가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합의가 무산된 경우에 소송으로 진행된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승소 후 사례금에 대한 지불이 이뤄지게 되며, 법원이 근로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노동소송이 넘쳐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한국의 경우 민사소송에서만 청구가 가능한 정신적 손해배상 역시 청구가 가능하므로 상당한 액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소송 기간은 비교적 길고, 통상 2~3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직원 채용 후 3개월까지는 인턴십으로 인정돼 비교적 해고가 자유롭다. 브라질에서 정당해고와 부당해고의 차이는 FGTS의 40%에 해당하는 벌금이다. 즉, FGTS의 40%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하면 해고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브라질 기업은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을 피하기 위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후 해고를 한다.

2017년 개정된 노동법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도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만 있으면 해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적립액의 20%만 벌금으로 책정되며 근로자는 FGTS 적립액의 80%까지 즉각 수령할 수 있다.

퇴직금

모든 회사는 직원 월 급여의 8%를 근속연수 보상기금(일명 퇴직수당: FGTS, Fundo de Garantia do Tempo e Serviço)으로 Caixa Economica 국책은행에 적립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 적립금은 직원이 해고 당할 경우 일시불로 찾을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 해고 시에 이 적립금의 50%를 벌금으로 지불하게 된다(40%는 해고 직원에게 지급, 10%는 다시 정부에게 지불함).

그러나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이 적립금을 퇴직 시에 찾을 수 없으며, 회사는 벌금 50%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브라질 노동자들은 퇴사 의사가 있을 시 FGTS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해고를 유도할 수도 있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의료보험(Plano de Saude)은 산업별 노조에 따라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의료보험을 지원하며 일부는 치과보험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와 같이 높은 수준의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기업은 줄었으나 고급 전문인력 유치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기업이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임금 및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브라질 정부는 실업자에게 신청자에 한해 고용보험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 6개월 동안 연속해 월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최소 6개월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 어떠한 지속적인 연금 혜택도 받지 못했으며, 사회보장규정에 따라 규제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경우

산재보험

일반 사무직 노동자에게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요구되지 않으나, 기계 장비를 운전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직종은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고용주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실을 노동법원에 호소하면 노동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해당 업종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원에 대한 부담금(INSS: Instituto Nacional do Seguro Social)을 납부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다. INSS는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 실업보험, 노령연금의 역할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로 제도화돼 있다. INSS는 법인, 개인이 징수 대상이며, 매월 고용주가 급여의 20%를 부담하고 직원은 급여의 8~11%를 INSS로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성별 관계없이 최소 15년)과 노동자의 나이(남성: 65세 이상, 여성: 62세 이상)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사회복지원에 대한 부담금(INSS: Instituto Nacional do Seguro Social)

- INSS는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 실업보험, 노령연금의 역할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로 제도화돼 있다. INSS는 법인, 개인이 징수 대상이며, 매월 고용주가 급여의 20%를 부담하고 직원은 급여의 7.5~14%를 INSS로 납부해야 한다.

- 급여 R\$ 1,100.00 이하: 7.5% 세율 적용함
 - 급여 R\$ 1,100.01~2,203.48: 9% 세율 적용함
 - 급여 R\$ 2,203.49~3,305.22: 12% 세율 적용함
 - 급여 R\$ 3,305.23~6,433.57: 14% 세율 적용함
- (*급여 한도는 2021년 기준)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소득 기본세율은 15%이나,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소득 중 초과액(연소득 24만 헤알 이상 또는 분기 소득 6만 헤알 이상)에 대해 10%의 초과 소득세가 적용된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5%의 초과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초과소득세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통 법인소득세율(IRPJ)은 25%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다 기업 이윤세(CSLL) 9%를 더한 34%가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IRPF)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부가 매년 소득 한도를 조정하여 공지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는 매년 3월 1일 ~4월 30일까지 연방세무국 사이트를 통해 신고한다. 2021년 기준 소득 한도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급여 1,903.98헤알까지는 면제
- 급여 1,903.99~2,826.65헤알의 경우, 공제액이 142.80헤알이며 세율이 7.5%이다.
- 급여 2,826.66~3,751.05헤알의 경우, 공제액이 354.80헤알이며 세율이 15%이다.
- 급여 3,751.06~4,664.68헤알의 경우, 공제액이 636.13헤알이며 세율은 22.5%이다.
- 급여 4,664.68헤알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869.36헤알이며 세율이 27.5%이다.

부가가치세

브라질에는 '부가가치세' 라는 통합 세금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신 '공업세(IFI)', '사회보장세(PIS/COFINS)', '유통세(ICMS)' 등이 부가가치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 세금 들은 가격 산정 시에 누진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브라질 정부는 사치품이나 담배, 주류 등과 같은 기호품에 주로 세금을 높게 부과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제품들은 다음과 같다.

- 까샤사(Cachaça): 81.87%(*사탕수수로 만든 술)
- 모피코트: 81.86%
- 보드카: 81.52%
- 담배: 80.42%
- 수입산 향수: 78.99%
- 비디오 게임: 72.18%
- 권총: 71.58%
- 오토바이(250cc 이상): 64.64%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브라질은 산업재산법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표장, 지리적 표시 및 부정경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하고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실용신안의 진보성은 특허와 같은 고도성의 기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품의 장식적 조형물 또는 제품에 이용할 수 있는 선 및 색채의 장식적 배치가 신규성과 독창성의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디자인권의 효력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최대 25년까지 존속 가능하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표장은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등록은 등록의 부여일로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지며 10년 단위로 무한히 갱신 가능하다.

저작권은 상표 및 특허권과 달리, 창작을 하는 순간 자연 발생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통지를 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임시예방 조치로 수색과 압류의 민사 소송과 침해된 제품의 사용 중지, 사용중지의 불이행에 대한 벌금형, 침해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과 손해의 유죄판결의 조치를 요구하는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2020. 4. 1.부터 브라질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국내 기업의 브라질 특허 출원과 등록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9.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청산 절차

사업 정리 시 회사에 잔여 부채가 없다면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30~120일이 걸린다. 회사 청산은 개인도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해 긴급적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다. 청산을 위해서는 우선 연방국세청(Receita Federal)을 방문해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체납 문제가 없으면 CNPJ(Cadastro Nacional de Pessoa Juridica; 법인 납세 번호)의 등록을 폐지해야 한다. 그다음 연방국세청에 법인소득세 납부증명서와 법인등록증(Ficha Cadastral de Pessoa Juridical)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주 재무국에서는 법인의 주 등록 폐지신청(Declaração Cadastal para o Cancelamento da Inscrição Estadual)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CMS 기입장인 세무 장부 1번 양식(Livro Fiscal Modelo1)과 6번 양식(주 세금 기입 장부)을 지참해야 한다. 시청에서는 시 등록 폐지신청(Guia de Dados Cadastrais: GDC)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SS(시 서비스 세) 기입장부인 세무장부 51번 양식과 57번 양식(시 세금 기입장부)을 지참해야 한다.

국가사회보장국(INSS - Instituto Nacional do Seguro Social)에서 복지금완납증명서(CND - Certido Negativa de Débito do INSS)를 받고, 연방금고은행(CEF - Caixa Econômica Federal)에서 FGTS(퇴직 기금) 완납증명서(CRF - Certificado de Regularidade do FGTS)를 받아야 한다.

위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이제 회사등록을 폐지해야 한다. 민사등기소(Carrio de Registro Civil de Pessoas Juridicas)에 등록된 법인은 민사등기소에서, 상업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은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에서 회사 등록을 폐지한다. 이때 법인(Sociedade)의 경우는 변호사가 작성한 회사 정관 해지서(Distrato Social)를 제출해야 한다.

위의 절차가 완료되면 회사의 법적 정리는 완료되나, 회사 관련 서류는 청산 후 최소 5년간 보관해두어야 한다.

○ 연방국세청에서 CNPJ의 폐지를 위해서는 회사 등록기관의 등록 폐지 증명 필요하다. 등록 폐지 증명은 법인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유한책임회사(LTDA)의 경우는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의 회사정관해지서(Distrato Social), 단순법인(Sociedades Simples)의 경우에는 법인민사등기소(Carrio de Registro Civil de Pessoas Juridicas)의 회사정관해지서,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OAB(변호사 협회)의 설립정관 해지서(변호사 사무실은 민법상 법인이지만 OAB의 특별관리를 받음), 비영리협회(Associações Sem Fins Lucrativos)는 법인민사등기소에 등록된 해산결의총회의록(Ata da Assembléia) 등이다.

2) 철수 관련 법령

해외 거주자가 브라질에 대한 투자를 매각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액수까지는 면세되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간주돼 15%의 원천소득세가 징수된다(조세 천국의 거주자에게 보내는 송금의 25%). 투자금의 회수는 투자를 매각하든지, 자본 감소나 기업정리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금의 해외송금은 중앙은행의 사전허가 없이 외환거래은행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외자등록증
- 자본이득의 산정표
- 대차대조표

외자등록증에 기재된 투자금과 투자회수금과는 환율 차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할 경우, 15%의 원천소득세 징수의 대상이 된다. 주의할 점은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에 나타난 영업누적손실을 모두 보전한 후에야 투자금을 철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투자 철수 시 누적 손실이 있다면 해당되는 만큼 감자를 단행하는 것이 좋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브라질은 지난 2015년까지 수년간 이어진 경제 성장으로 인해 소득 증가, 도시화 부분에서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소비 트렌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중산층이 확대됐다. 2011년 기준 브라질 상위 소득층 인구는 전체의 6%, 중산층 인구는 54%를 점유했으며 하위 소득층은 38%를 차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에는 중산층 비중이 51%로 하락했으며, 반대로 하위 소득층은 43%로 증가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2021년의 경우, 상위소득층이 전체 인구의 6%, 중간소득층과 하위소득층은 각각 47%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 브라질 소득별 계층 (2021)

(고소득층) A : 월 가구 소득 20,643.77헤알

*전체 인구의 6%

(중간소득층) B : 7,202.57헤알

C1 : 4,206.45헤알

C2 : 2,971.37헤알

*전체 인구의 47%

(저소득층) C3 : 2,238.20헤알

D1 : 1,585.52헤알

D2 : 981.63헤알

E : 262.02헤알

*전체 인구의 47%

자료원: Instituto Locomotiva (브라질 조사 업체 협회)

* 주: 브라질 인구: 2억 1,330만 명

환율: 1 달러 = 5.7헤알 (2021년 12월 22일 기준)

<자료원 : 국가지리통계원 IBGE(www.ibge.gov.br), 여론조사업체 IBOPE>

소비 성향

브라질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저가, 대용량을 선호하던 기존 소비패턴에서 점차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호하는 Trade up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구매 트렌드는 향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고사양 프리미엄 제품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조사 기관 닐슨 브라질이 소득계층에 따른 총 85개 카테고리 품목의 소비패턴을 조사한 결과, 브라질 소비자들이 저가 물품보다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고품질, 고사양의 상품을 선호하는 쪽으로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연 수입이나 품목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전 계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민간소비는 브라질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저성장, 물가 상승, 실업자 증가 등에 따른 가계

소득 감소로 구매력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20년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소비력은 더욱 감소된 상태다. 구매력 감소는 꼭 필요한 제품만 선별하고 품질을 따지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고품질의 상품을 선호하는 브라질 소비자들의 Trade up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의 중산층 확대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소비자 변화를 주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장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고급 소비재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브라질 진출 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은 물론 상품의 고급 이미지화가 필요하다.

한국 상품 이미지

브라질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덕분에 브라질 소비자들이 떠올리는 한국 상품은 휴대폰, TV, 컴퓨터, 자동차 등 주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IT 제품이다. 또한, 브라질 현지에서 생산되는 현대 자동차 제품의 경우, 견고함과 모던함을 겸비한 모델로 인식되어 브라질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전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K-pop의 열기는 브라질에서도 뜨겁다. 브라질 팬들은 K-pop 사이트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K-pop에 대한 여러 의견, 기사, 최신 소식과 같은 정보들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메로나, 봉어싸만코 등 한국산 아이스크림이 수년 전부터 브라질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과일이 들어간 봉봉 주스도 꾸준한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식품을 구매하려는 브라질 소비자들이 봉헤찌로(Bom Retiro)나 리베르다지(Liberdade) 지역에 위치한 한인 슈퍼마켓을 방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거래 시 브라질 사람들은 대체로 신용을 중시하는 편이라 처음에는 소량 거래로 믿음을 쌓아가는 편을 선호해 첫 번부터 대량 거래를 기대하면 안 된다. 양자 간의 관계가 무르익은 후 대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렇게 신뢰가 쌓이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거래선을 잘 바꾸지 않는 것도 브라질인들의 특색이다.

한국기업 역시 브라질 바이어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해당 기업의 실존 여부, 신용도 조회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 닭고기, 브라질너트 수입 등과 관련하여 돈부터 먼저 보내라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무역 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장 시 제품 카탈로그는 필수로 챙겨오고, 가능하면 샘플을 가져와 직접 보여주는 것이 좋다. 제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카탈로그만으로는 우수성을 전달하기 어려우므로 무거운 장비나 기계가 아닌 이상 샘플을 가져오는 것이 비즈니스 성공을 제고에 도움이 된다.

상담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여러 번 연락을 해도 회신이 없으면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 사람은 남미인 특유의 여유로움이 지나쳐 매사에 업무 처리가 신속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수차례 연락해야 겨우 회신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 업체가 보기에 브라질 업체가 거래할 만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 정중한 표현으로 거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 서로 간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계약 관행상으로는 브라질은 세계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고, 관행적으로 외상거래가 일반화돼 있어 외상거래를 선호한다. 따라서 상담 시 융통성 있는 상담 자세가 필요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용상태 파악이나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통관검사 강화로 밀수, 언더밸류 등 비정상 상거래가 많이 축소됐으나 아직도 상당 부분 비정상적인 상거래가 잔존하고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브라질은 상사분쟁 관련 국제협정(ICSID)이 미체결돼 있어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만일의 경우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인과 협상 중에 팀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브라질 기업인이 한국인과 협상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두 가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협상 테이블에 한국어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협상 과정에 담당자가 수시로 바뀐다는 점이다. 브라질 기업인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회의 도중 통역사와 너무 장시간 한국어로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일반적으로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나 가족기업의 기업인들은 비교적 느슨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한 복장을 선호하나, 비즈니스맨은 대부분 복장에 세심한 신경을 쓴다. 보통의 브라질 사람들은 남녀 모두가 캐주얼한 차림을 즐기는 편이다. 공식 석상이 아니면 정장을 입지 않는 편이며, 여성의 경우 노출이 심하거나 몸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차림도 흔히 볼 수 있다. 청바지는 캐주얼 차림뿐 아니라 비즈니스 미팅 복장으로도 종종 사용되는데, 상의는 반드시 정장을 입을 필요가 있다.

2) 인사

브라질 사람과 비즈니스 만남 시에는 악수하는 것이 정석이며, 평소에는 여성과 인사 시 양 볼에 키스하고 안면이 있는 남성끼리는 어깨나 등을 톡톡 치거나 반 포옹을 한다. 또한, 처음 본 사람을 낯설어하는 경우가 없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 보면 금세 친근감을 표시하기 때문에 남미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처음 만난 사람과 낯을 가리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고 서로 싫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회의 석상에서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어야 하고, 회의가 끝날 때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져야 한다. 보통, 점심이나 저녁 시간 전에 회의가 끝나는 경우는 브라질 측에서 먼저 식사 약속을 하게 되는데, 만일 이러한 약속 없이 회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분위기에 따라 식사 초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회의 종료 후 먼저 회의장을 나서지 말고 상대방의 태도를 관망하는 것이 좋다. 저녁 식사의 초대는 상담이 잘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식사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 2020년 코로나19 창궐로 브라질 사람들의 인사 문화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키스 등과 같은 신체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악수 대신 주먹 권 손등을 가볍게 부딪치는 방법으로 인사를 나누는 습관이 새롭게 생겼다.

3) 선물

브라질 비즈니스의 원칙부터 말하자면 첫 만남에 선물을 주는 경우는 없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점심이나 저녁을 초대하는 것은 아주 좋다. 일반적으로 점심은 예의를 의미하고, 저녁은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물은 이러한 절차가 지난 후에 상대방의 취향을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회사 로고가 찍힌 선물은 비즈니스 상담 기념으로 아주 좋다. 요즘은 브라질 기업들도 미리 회사 로고를 찍은 선물을 준비해 방문객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만일, 회사 기념품 외에 선물을 주고 싶다면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턱없이 비싼 선물은 오해를 사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

4) 약속

브라질 사람과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전화를 통해 구두 약속을 한 후, 가능하면 이메일 등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1~2주 전 미리 날짜를 약속하는 것이 좋고, 특히 정부기관과의 면담일 경우 1~2개월 전에 미리 면담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브라질 사람들은 약속시간 엄수에 철저하지 않은 편이며, 특히 비공식적인 자리일 경우 30분 이상 늦게 도착하는 것에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이것을 브라질리언 타임으로 생각하고 한국 측에서도 습관적으로 늦는다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 코로나19로 재택 근무와 온라인 미팅이 확대되면서, 과거 시간 엄수에 철저하지 않았던 브라질 바이이어나 정부 기관 관계자들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여러 건의 온라인 미팅이 잡혀있기때문에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최대한 지켜줄 필요가 있다.

5) 식사

브라질 사람들은 저녁 식사 시간이 매우 늦은 편이다. 9시나 10시 이후에 저녁 식사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으므로, 브라질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경우에는 너무 이른 시간에 초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코셔 인증(정통 유대인의 경우)을 받은 식당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식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상파울루의 경우 코셔 인증을 받은 유대 음식 전문식당이나 채식 전문 식당을 찾는 일이 어렵지 않다. 식사 중에는 입에 음식을 가득 감은 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먹는 것이 예의다. 특히 국수 등을 먹을 때 '후루룩'하며 소리를 내며 먹지 말아야 하며, 포크로 감아 나이프로 한입 크기로 적당히 잘라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사 후에 입을 벌리고 이를 쏘이거나, 큰소리로 트림하는 것은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브라질 사람들은 술을 즐겨 마시나 많이 마시지는 않는 편이다. 저녁 시간의 경우, 맥주와 와인을 식사에 곁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가볍게 한두 잔 마신다. 까이삐링냐(Caipirinha)는 사탕수수로 만든 술(약 40도가량의 술로 '까샤사'라고 불림)에 레몬과 설탕, 얼음을 잔

뜩 넣어 으깨어 먹는 술로서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전통주이며, 요즘은 레몬 대신 키위, 딸기 등의 여러 과일을 넣어 마시는 것이 유행이다. 술 한 잔 시켜놓고 한두 시간 대화를 즐기는 브라질 사람들에게 한국식 폭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이며, 한국식으로 원샷을 하거나 술을 강권하는 문화는 처음 몇 잔은 이색체험으로 재미있어하거나 따라 하지만, 그 이상 계속되면 곤혹스러워할 수 있다.

브라질에도 '퇴근 후 술 한 잔' 문화가 있다. 'Happy Hour'라 불리는 퇴근 후 음주 문화는 부서 전체가 참석보다는 마음이 맞는 동료 몇 명이 모여 맥주 한두 잔 마시며 담소하는 것이 전부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주는 대부분 생략하거나 감자튀김 정도의 가벼운 안주를 주문하며, 주로 주말이 가까워 부담이 적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Happy Hour'를 갖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 2021년 9월 기준 상파울루의 경우, 사회적 격리가 완화되면서 레스토랑에서 식사가 가능하다. 전체 수용 인원의 70% 이하 정도만 입장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사실상 자유화 된 상태이다. 그러나 브라질 사람 중에는 여전히 대면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있어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살펴보고 식사나 대면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 1) Mercado Livre (www.mercadolivre.com.br)
 - 개요: Mercado Livre(아르헨티나 등 여타 남미국가에서는 ‘Mercado Libre’로 표기)는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현재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19개국에 진출해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Mercado Livre는 1999에 설립됐으며 같은 해 브라질 사이트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동사의 2021년 2분기 전체 매출은 17억 달러로 달러화 기준 전년동기대비 93.9%(헤알화 기준 102.6%) 성장했다. 브라질은 Mercado Livre 글로벌 매출의 약 55.9%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155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 주요 판매 품목: 자동차(신차 및 중고차), 부동산(판매 및 임대), 가전제품, IT제품, 의류 및 액세서리, 스포츠/ 피트니스용품, 건축자재 및 공구, 건강제품, 뷰티제품, 아동용품, 장난감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Mercado Livre는 ‘해외구매’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로 구매자에게 배달하고 있다. 는 ‘해외구매’ 코너 제품의 구매자는 헤알화로 결제할 수 있으며, 배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 2) Americanas (www.americanas.com.br)
 - 개요: 브라질에서 높은 인지도를 누리고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중 하나로 Lojas Americanas 사가 최대 주주이다. 동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 시스템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던 브라질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99년에 설립됐으며 2020년말 기준 전년대비 500만여명이 늘어난 214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판매 품목: 가전제품, IT제품, 의류 및 액세서리, 스포츠용품, 뷰티제품, 아동용품, 장난감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2006년 M&A를 통해 B2W 그룹이 설립됐으며 현재 Americanas.com을 비롯하여Submarino, Shoptime, Sou Barato.Lojas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동 그룹에 속해있다

- 3) Amazon (www.amazon.com.br)
 - 개요: 2012년 브라질 시장에 진출한 동사는 Kindle과 십여 종류의 e-book 만을 Amazon.com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35,000 종류의 e-book을 취급하게 됐다. 외국어로 쓰여진 도서까지 합칠 경우 약 200만 종류가 동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2년 12월 브라질 시장에 진출한 Amazon.com은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2018년 Amazon이 약 4억 150만 헤알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주요 판매 품목: 자동차용 액세서리, 유아용품, 뷰티 제품, 장난감 및 게임, 가전 제품, 스포츠용품, 주방용품, IT 제품, 약기, 도서, 의류, 사무용품, PET 제품, 가구, 건강제품, 식품 및 음료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 특징 : 2014년에는 인쇄도서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 스마트폰, 게임, 소형 가전 판매, 2018년부터는 사무용품 및 학용품 판매를 시작했다. 동사는 상황에 맞는 점진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2017년 가전제품 판매를 시작하면서 브라질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혔다.

- 4) Magazine Luiza (www.magazineluiza.com.br)
 - 개요: 상파울루 주 내륙도시 Franca에서 탄생한 Magazine Luiza는 초기에는 생활잡화, 의류 등을 파는 지역 상점이었으나 현재는 브라질 23개주 819개 도시에 11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창업주의 손자 Frederico Trajano가 CEO에 취임하면서 Magazine Luiza의 디지털 전환이 시작됐으며 현재는 멀티채널을 보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가진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Magazine Luiza는 1957년 설립됐으며 2020년 매출은 전년대비 60% 성장한 435억 헤알을 기록했다. 동사는 2017년 기준 약 35,0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 주요 판매 품목: 유아용품, 뷰티 제품, 장난감, 가전 제품, 침구용품, 스포츠용품, 주방용품, IT 제품, 도서, 의류, 사무용품, PET 제품, 가구, 건강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 특징: 동사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브라질 국내 ‘우수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을 12회 수상했다. 2021년에는 칸느 광고홍보 페스티벌 ‘칸느 라이언즈’의 ‘Creative E-commerce’ 카테고리에서 동 (bronze) 사자 상을 수상했다. Boston Consulting Group에 따르면, 2016~ 2020년 사이 Magazine Luiza의 시장가치가 22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 5) Shopee (www.shopee.com.br)
 - 개요: Shopee는 싱가포르의 Sea Group에 속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다수 국가에 진출해있다. 2019년 아시아 외 지역최초로 브라질에 진출

출했으며, 2021년에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5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됐으며 브라질에는 2019년 진출했다.
- 주요 판매 품목: 자동차용 액세서리, 유아용품, 뷰티 제품, 장난감 및 게임, 가전 제품, 스포츠용품, 주방용품, IT 제품, 악기, 도서, 의류, 사무용품, PET 제품, 가구, 건강제품, 식품 및 음료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 특징: Shopee는 브라질에 진출한지 2년밖에 안됐으나 매우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고 '9.9 Super Shopping Day'에는 최대 80% 할인 행사와 무료 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LG전자

1995년 브라질에 법인을 설립한 LG전자 브라질 법인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휴대폰, 에어컨, 모니터 등에서 삼성전자, 노키아 등과 선두경쟁을 벌이고 있다. 브라질 경제중심지 상파울루에 판매법인, 인근 따우바테시 및 아마존 지역 마나우스 시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치밀한 시장조사, 스포츠마케팅 및 프리미엄 마케팅 등의 현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치며 브라질 내수뿐만 아니라 인근국으로의 수출도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1995년 7,000만 달러를 투자해 LGEAZ(LG Electronics da Amazonia Ltda.)와 LGESP(LG Electronics de Sao Paulo Ltda.) 등 2개 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LGEAZ는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생산 기반을 두고 각종 TV, 오디오, DVD, RAC(Room Air Conditioner)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다. LGESP는 상파울루 시에서 130km 떨어진 따우바테라는 산업도시에 위치해 각종 모니터, 휴대전화를 생산하면서 전체 브라질의 물류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두 법인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시장점유율에서 이미 선두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Sony, Panasonic, Toshiba 등 브랜드와 상당한 격차를 유지할 만큼 점유율이 높다.

진입 초기에는 낮은 브랜드 인지도, 제품 포지셔닝 오류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브랜드를 알리고 전국 유통망을 구축해 제품 판매를 증대해야 하는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했다. LG는 우선 차별화된 애프터 서비스 정책을 바탕으로 품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구매 잠재력이 큰 주요 거점 도시들-남부의 브로두알레그레,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의 남동부 지역, 북동부의 살바도르-에서 집중적으로 브랜드와 제품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다. 가전제품 전문 판매매장 내에 LG 디지털 공간(LG Digital Space)을 확보해 첨단 제품을 지속적으로 전시하거나 유통 이벤트, LG 투어 대화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했다. 아울러 상파울루를 연고지로 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축구팀 SPFC(Sao Paulo Football Club)를 후원하는 스포츠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상파울루 축구팀은 인기 순위 1~2위를 다투는 팀으로서, 스포츠 마케팅으로 친근하게 다가선 LG를 현지 기업으로 생각하는 브라질 인도 많이 있을 정도이다.

또한, 브라질 최대의 축제인 카니발 기간에 시발점인 고도(古都) 살바도르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후원하고, 각종 전시회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브라질 국민에게 친숙한 브랜드로 다가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제품 리더십(Product Leadership)을 기반으로 유통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을 통해서 브라질 현지 정서에 맞는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활동을 펼친 것이 오늘날의 성공을 이끌어낸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LG는 인근 국가로의 수출을 통해 노출된 외환 리스크를 상쇄시키고 현지 금융 의존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운전 자본금을 확보했다. 더불어 브라질 내 부품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해 현지 부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이용했다. 세금 문제의 경우, LG는 현지의 명망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세무 전문회사를 이용해 관련 문제의 해결방법 및 대정부(연방, 주)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 7월, 휴대폰 공장 증설 기념식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 및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브라질에서 LG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현재 LG전자는 삼성전자와 함께 브라질 평판 TV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2) 삼성전자

마나우스 현지 생산에 따른 세제혜택을 활용해 생산경비를 절감하는 데 성공했으며, 매출액의 2.7%를 R&D에 사용하는 등 투자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의무 불이행 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손해 취소 및 자재 수입 불가 등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했다. 중남미 상권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남미 공동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주변 국가에 저렴한 비용으로 수출을 시도했다. 환율 급락과 같은 경영 환경의 급변에 대해서 최소한의 투자전략으로 맞섰으며, 수출 활성화를 통한 경영 위험 요소를 줄이는 전략을 펼쳤다. 한편, 브라질 정부의 부품 육성산업 정책에 부응해 적극적인 대정부 로비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LG 전자와 함께 브라질 평판 TV 시장에서 판매율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스마트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시대가 도래하면서 삼성전자의 IT 제품은 브라질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삼성제품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갤럭시 시리즈 제품의 경우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모두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브라질 최대 일간지 Folha de Sao Paulo가 선정한 2014년 'Top of Mind' 리스트에 오른 브랜드 중에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TV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첨단 기술 관련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Top Tecnologia) 분야 또한 1위로 선정됐다.

3) 현대자동차

초기 투자 비용 6억 달러를 투입해 상파울루 내륙 지역 피라시카바에 건설한 현대자동차 브라질 공장은 우여곡절 끝에 2012년 말 마침내 문을 열었다. 90년대부터 브라질 진출 기회를 모색해 오던 현대자동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 연기 등 수차례 투자 계획이 연기되면서 2011년에 비로소 공장 건설을 시작, 2012년 말에야 공장 가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현대차와 더불어 피라시카바 시 인근에는 협력업체 9개사가 동반 투자 진출을 했다. 현대 피라시카바 공장의 면적은 6만 9,000㎡로 스탬핑, 용접, 도장, 조립 등 자동차 제조와 관련 전 공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브라질 자동차 유통협회(Fenabrave)에 따르면, 2020년 브라질 내 현대차 판매는 승용차 부분 점유율 10.1%로 4위를 기록했다. 1위는 제네럴모터스(GM)(18.89%), 2위는 폴크스바겐(17.71%), 3위는 피아트(10.2%), 5위는 르노(7.43%), 6위는 포드(7.39%)이며, 7위는 지프(6.82%), 8위는 도요타는(6.53%), 9위는 닛산(3.28%)으로 조사됐다. 2012년 말 출시된 브라질 현지 전략 차종인 HB20가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서 상위권을 다투며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자동차 판매가 대폭 감소한 2020년에도 HB20는 86,548대가 판매되어 승용차 부문에서 2위를 유지했다.

4) 쥘바디

브라질은 의료기기·제약품 인증(ANVISA)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쥘바디는 현지 의료공기업 바이아파르마와의 협력을 통해 사전에 브라질 보건부 산하 위생감시국(Anvisa)로부터 지카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생산·판매 승인을 받는 등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인증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이에 '16년 10월 바이오 벤처기업 쥘바디는 자체 개발한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 진단키트 350만 개의 핵심 원료를 브라질 국영제약사 바이아파르마(Bahiafarma)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쥘바디의 제품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20분 내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핵심원료 전량을 브라질 측에 3천만 달러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는데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992년 8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2002년 5월 20일부로 발효된 한국-브라질 비자면제협정에 의해 관광, 상용 비자 없이도 쉽게 입국할 수 있어졌다.

비자는 통과비자, 관광비자, 임시거주비자, 영주거주비자, 관용 비자, 외교비자, 명예 비자 등 7가지가 있다. 이 중 관광비자, 임시거주비자, 영주 비자가 브라질과의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비자 종류이다.

1) 통과비자

제3국으로 여행하는 중에 브라질을 경유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비자로 경유 비자라고도 한다. 전형적인 예로는 중간 기착지가 브라질이며, 갈아타는 공항이 도착공항과 다를 경우 또는 운송수단이 다를 경우가 될 것이다.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가까운 브라질 영사관에 들러 여권과 연결 항공표를 제출하면 된다.

2) 관광비자

관광을 목적으로 브라질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된다. 브라질 정부의 비자정책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브라질인에 부여하는 비자 조건에 준해 관광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이 브라질 정부의 입장이다. 브라질법은 관광객을 '이민이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관광 또는 방문의 성격으로 브라질에 입국하는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체류 기간은 통상 90일을 넘을 수 없다.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 상호주의의 기준하에 외무부가 결정하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수 출입국이 허용되며, 동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하되 체류허용 기간은 1년에 최대 180일로 한다. 우리나라와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돼 있어 90일 이내에는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 주의사항: 브라질은 코로나19 때문에 2020. 4. 13.부터 수개월 간 사증면제협정이 정지됐었으나, 2021년 12월 현재, 한국인은 과거와 같이 비자 없이 브라질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브라질 방문 시 주한 브라질 대사관 등을 통해 비자 발급 정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임시거주비자

임시거주비자는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임시로 브라질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며, 외국인 법은 외국인의 입국 목적에 따라 임시비자를 다음의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문화 여행 또는 연구 목적
- 상업 여행
- 예술가 또는 체육인
- 유학 목적
- 과학자, 교수, 기술자 또는 전문직업인으로 노동계약이나 브라질 정부의 봉사 목적
- 신문사, 잡지, 라디오, TV, 통신사의特派원 신분
- 종교인

체류 기간이 1년 이내로서 여행목적이 관광이 아닌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이중, 무역이나 투자활동과 관련해 특히 관심거리가 되는 종류는 상업여행과 노동계약을 통한 임시 영주권 발급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은 1996. 9. 11.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상용·투자·취재 사증의 발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97.12.25.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 협정 제1조는 '체약 당사자는 상용, 투자 또는 취재를 목적으로 타방국의 영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에게 매년 총 18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방국에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최고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영주거주비자

영주비자는 브라질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영주 비자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는 다음의 6가지가 있다.

- 연구원 또는 고급전문인력
- 브라질 법인의 경영인(administrator, manager, director)
- 투자이민
- 60세 이상의 은퇴인으로 월 2,000달러 이상을 브라질로 송금할 수 있는 자
- 브라질인과 혼인한 자
- 브라질인 직계손이 있는 경우

영주 비자를 신청하는 국가는 신청 전에 해당 거주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여야 한다. 영주권은 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외무부가 발급한다.

영주비자 신청은 브라질 현지법인이 노동부에 신청하기 때문에 비자발급허가통지는 신청인이 받게 된다. 허가통지서를 발급받은 현지법인은 그 사본을 브라질 신청인에 송부하게 되고, 해당인은 현지 브라질 영사관에서 입국영주비자를 취득하게 된다. 영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정부가 정한 자격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세관검사는 입국자 중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입구에 설치된 화살표가 파란색이면 통과, 붉은색이면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0년 현재 연방 국세청 포고령에 의해 1인당 500달러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을 반입할 수 있으며 면세점에서 1,000달러 이하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개인 휴대품의 인정 범위는 개인 용품과 카메라, 노트북/컴퓨터, 스포츠용품, 1,000달러까지이며, 무세통관 불허품목(전자제품, 광학기기 등과 사치품 등)은 세관에 영치한 후 출국 시 반출하거나 간이 수입절차 수속 후 반입을 하면 된다. 식물과 애완용 동물은 출국자의 방역증이 있는 경우(대사관의 인증서 포함)에 반입할 수 있다.

세관 신고 면제 품목은 다음과 같다. 개인용 의류 및 위생/미용용품, 액세서리 및 장식품, 서적 및 잡지, 개인 사용 의약품, 담배 250g까지(시가는 25개비, 1갑 20개비 기준 최대 10갑): 18세 이상의 여행객에만 해당, 주류(12L까지), 10달러 미만 제품 20개(동일 제품은 10개 미만 0, 10달러 초과 제품 20개(동일 제품의 경우 3개 미만)가 있다.

* 상세정보: <https://www.gov.br/receitafederal/pt-br/assuntos/aduana-e-comercio-externo/viagens-internacionais/guia-do-viajante/entrada-no-brasil/cota-de-isencao-duty-free-e-bagagem-tributavel>

위의 품목의 경우에는 세관 신고가 필요 없으며,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가격 제한은 없다. 농산물 중 특히 부패 위험이 있는 식품의 경우 국내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나, 단 공항 내 Duty Free Shop에서 구입했을 경우에는 반입할 수 있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브라질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	+55 (61) 3321-2500
주소	Av. das Nacoes, Lote 14 Asa Norte, 70800-915, Brasilia-DF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br-ko/index.do
비고	긴급연락처(사건사고): +55 (61) 99658-2421 업무시간: 09:00~12:30, 14:00~17:30

○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55 (11) 3141-1278
주소	주소: Av. Paulista, 37, 8º Andar, cj.81 - Bela Vista So Paulo/SP Brasil CEP 01311-902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br-saopaulo-ko/index.do
비고	사건 사고 긴급 연락처: +55 (11) 97188-5194 민원업무시간: 평일 10:00~16:00 (방문 사전예약제 운영 중, 점심시간 없이 정상 운영)

○ 재 브라질 한인회

전화번호	+55 (11) 3331-3878
주소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108호, Bom Retiro, Sao Paulo-SP
홈페이지	http://www.hanintoday.com.br
비고	한인 회장: 홍창표 (Nelson Hong) email: hanintodaybr@gmail.com / webmaster@hanintoday.com.br 전화2: +55(11) 99721-7457

○ 브라질 한국 문화원

전화번호	+55 (11) 2893-1098
주소	Av. Paulista, 460 - Bela Vista, Sao Paulo- SP
홈페이지	http://brazil.korean-culture.org/ko/welcome
비고	월~금: 10:00~19:00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브라질 정부

주소	Praca dos Tres Poderes - Brasilia, DF, 70150-900
홈페이지	http://www.brasil.gov.br

○ 산업통상국 (Secretary of Industry and Trade)

전화번호	+55 (61) 2027-7042/7041
주소	Esplanada dos Ministérios, Bloco J - 8º andar CEP: 70.297-400, Brasilia - DF
홈페이지	https://www.gov.br/produtividade-e-comercio-exterior/pt-br
비고	email:agenda.secint@economia.gov.br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5.7헤알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4.010
2	식품	비빔밥	1인분	10.75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9.160
4	식품	신라면	1봉지	2.10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1.310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45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350ml	0.520
8	의료	항생제	12정	12.03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77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0.77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0.77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7.54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13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17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5.470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2.190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8.770
18	임금	최저임금	시급	0.91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년간	13000.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9.250

<자료원 :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1994년 화폐 개혁 이후 탄생한 브라질 화폐는 헤알(Real)로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페로는 1, 2, 5, 10, 20, 50, 100, 200헤알이 사용되고 있으며, 동전으로는 1, 5, 10, 25, 50센타보(Centavo), 1헤알이 사용되고 있다.
-------------	--

환전방법

브라질에서 달러 ↔ 헤알 또는 유로 ↔ 헤알로 환전할 수 있으며, 달러 환율은 보통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돼 환전 시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2021년 9월 24일 기준 환율은 1달러=5.3헤알이다.

- Dolar Comercial: 수출입 등 상거래 시 또는 은행 간 거래 시에 적용되며, 중앙은행에 의해 엄격히 관리된다.
- Dolar Paralelo: 주로 달러 상인들에 의해 정부에 신고 없이 암거래할 때 적용된다.
- Dolar Turismo: 중앙은행에 등록된 환전소에서 거래되는 달러로,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개인이 환전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일반 은행이나 환전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며, 상파울루 지역이나 리우 지역 중심지에는 곳곳에 환전소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쇼핑센터 및 관광지에서는 환전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환전 시에는 골목 등의 외진 곳보다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의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환전 시에는 가능하면 주변 사람에게 환전 액수가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하는 것이 좋다. 암달러상 등을 이용할 경우 다소 높은 환율을 적용해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위폐를 받게 될 위험도 크다. 브라질에는 중앙은행 허가하에 영업 중인 환전소에서 바꾼 달러 조차도 위폐인 경우가 간혹 있다.

신용카드 이용

브라질 현지의 신용카드 사용은 매우 보편화하여 있으며 대부분의 식당 및 상점, 호텔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는 재래시장이나 노점상에서도 카드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들어 브라질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현금카드(Debit Card)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 계산 시 거스름돈을 준비해 놓지 않은 상점이 많아 불편을 겪는 일이 종종 있는 편이다.

나. 교통

교통상황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등 대도시의 경우, 버스 및 지하철 등 교통망이 비교적 잘 발달하여 있는 편이다. 그러나 대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대중교통 시스템이 취약하므로 자가용이나 택시가 주요 교통수단이다. 상파울루는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학교 근처)에 교통 혼잡이 심한 편이며, 여행을 떠나거나 식사 약속이 많은 금요일 저녁에도 일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심한 교통 체증을 겪는 일이 종종 있다.

버스

버스는 브라질에서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지만, 버스 노선이 많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다. 상파울루 지역의 경우 14,500대의 일반버스가 운행 중이나, 한 번에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노선이 없어 2개 이상의 노선을 이용해야 하거나 지하철로 환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Bilhete Unico'는 일반 Pre-Paid 카드처럼 일정액을 입금한 후에 버스 또는 지하철 승차를 위해 사용하는 교통카드로, 여러 번 대중교통을 바꾸어 타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2시간 이내에 버스 또는 전철을 4번까지 환승할 수 있으며, 맨 처음에 탑승하는 교통수단에 서만(버스, 전철 또는 국철) 요금이 정산되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패스하면 된다. Bilhete Unico는 주요 지하철역에 매표소가 있다. 시영 버스 시설은 상당히 낙후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 2021년 9월 기준, 상파울루 시내버스 요금은 4.40헤알이다.

택시

브라질이 초행이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다. 브라질에서 택시제도가 잘 발달해 있으며, 주소만 운전사에게 말하면 대부분 목적지까지 안내해준다. 단 운전사의 대부분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주소를 적어줄 필요가 있다. 길에서 운행 중인 택시를 불러 타는 것보다 'Ponto de Taxi'라고 표시된 택시 정류장에서 탑승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Ponto de Taxi'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들은 시청에 등록된 차량이며, 신분이 분명한 택시 운전사만이 "Ponto de Taxi"에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택시 요금의 경우 시간 기준제와 거리기준제가 혼용되고 있다. 기본은 시간제이나 일정 속도가 넘으면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2021년 기준 기본요금은 4.50헤알이며 20시~익일 오전 6시 사이에는 약 30%의 할증료가 적용된다.

최근에는 일반 택시보다 20~30% 저렴한 Uber 택시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호출형 택시 Lady Driver(여성이 운전), 99 Taxi 등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지하철

상파울루 시 지하철은 남북을 잇는 자바과라(Jabaquara)와 투쿠루비(Tucuruvi)간의 20Km 노선(18개 역)과 동서로 달리는 이타께라(Itaquera)-바하 푼다(Barra Funda) 등 5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7호선~11호선은 CPTM관할)

- 1호선: Linha Azul(청색선): Jabaquara - Tucuruvi 구간 운행
- 2호선: Linha Verde(녹색선): Vila Prudente- Vila Madalena 구간 운행
- 3호선: Linha Vermelha(적색선): Corinthians Itaquera - Barra Funda 구간 운행
- 4호선: Linha Amarela(황색선): Butanta - Luz구간 운행
- 5호선: Linha Lilas(자색선): Capao Redondo; Chacara Klabin 구간 운행
- 7호선: Linha Rubi(진홍색): Luz - Jundiai 구간 운행
- 8호선: Linha Diamante(회색): Julio Prestes - Amador Bueno 구간 운행
- 9호선: Linha Esmeralda(에메랄드색): Grajau - Osasco 구간 운행
- 10호선: Linha Turquesa(청록색) : Rio Grande da Serra - Bras 구간 운행
- 11호선: Linha Coral(산호색): Estudantes - Barra Funda 구간 운행
- 12호선: Linha Safira(사파이어색): Calmon Viana - Bras 구간 운행

o 하기 링크에 접속하면 상파울루 지역의 지하철 노선도를 볼 수 있다.

- <http://www.metro.sp.gov.br/pdf/mapa-da-rede-metro.pdf>

리우에는 1호선, 2호선과 4호선 있다. 철도는 완전히 낙후된 상황으로 근교 도시를 잇는 구간을 제외하곤 거의 화물 운송 수단으로만 사용된다. 같은 지점을 가더라도 버스보다 시간이 더 걸리며 불편하다.

- 하기 링크에 접속하면 리우데자네이루 지역의 지하철 노선도를 볼 수 있다.
- <https://www.metrorio.com.br/VadeMetro/Mapas>

다. 통신

핸드폰

휴대폰 가입의 경우, 본인의 ID, CPF(납세자 번호) 및 주소 증명서 사본(전화, 인터넷, 전기세 등 전달 요금지불서 가능)을 통신사에 제출 시 즉시 개통할 수 있다. 상파울루에는 VIVO, TIM, CLARO, Oi 등 4개의 주요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가 있다. 지불 방법은 2가지로 선불과 후불 방식이 있으며, 선불제도의 경우 입금 가능 금액은 10.00~300헤알이며, 별도의 가입비는 없으므로 전화를 거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많이 하는 이용자들에게 유리하다. 단, 선불제의 경우 단말기 금액 및 분당 통화료가 후불 제도보다 조금 더 비싼 편이다. 후불방식의 경우, 여러 가지의 패키지가 있는 편이며 본인의 통화시간에 맞게 패키지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Telefônica, Net, GVT 등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있으며, 시내에서는 Lan house, PC Café 등 한국의 PC방 같은 곳이 다수 있어 이메일 체크나 인터넷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Mc Café, Starbucks 등 커피 전문점, 대형 서점 등에서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또한, 최근에는 4G 서비스가 제공되는 선불 휴대전화가 보편화돼 있어 해외에서 가져온 단말기를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권을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업체(Vivo, Claro, Tim, Oi)를 찾아가 유심칩 비용(약 10헤알)만 지불하면 신규 전화선을 쉽게 개통할 수 있다. 개통 후에는 선불 전화카드를 구입해 사용하거나, 슈퍼마켓, 약국 등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해 사용한다.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위의 서비스 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인터넷 모뎀 사용 시 인터넷 회사에 따라 모뎀 요금이 다르며 케이블 TV를 이용한 인터넷일 경우 별도로 모뎀이 필요 없다. 임대할 경우, 매월 임대료를 사용비와 함께 지불하며 월 약 30헤알이다.

라. 관광명소

○ 예수상(Cristo Redentor - Corcovado)

도시명	리우
주소	Parque Nacional da Tijuca, Cosme Velho, Rio de Janeiro, State of Rio de Janeiro 22241-330, Brazil
운영시간	(월~일) 8:00~16:00
명소소개	리우 시내 해발 720m 산 정상에 세워진 예수상. 높이는 38m, 무게 1,100톤으로 리우 시민 모금에 의해 1931년 이탈리아 천문학자 설계로 완성됐다. 이 예수상은 과나바라(Guanabara)만을 향해 팔을 펴고 있으며, 이곳에서 리우 시내를 사방으로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조명에 의해 예수가 재림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승용차로 정상에 도착할 수 있으며, 전철 이용도 가능하다.
비고	전화: +55 (21) 2558- 1329 웹사이트: http://www.tremdocorcovado.rio/ https://ticket.corcovado.com.br/

○ 빵 데 아썬까르 산(Pao de Acucar (Sugar Loaf Mountain))

도시명	리오
주소	Av. Pasteur, 520, Rio de Janeiro, Estado do Rio de Janeiro 22290-255, Brasil
운영시간	(일~토) 08:00~19:50
명소소개	원래 인디오의 발음을 흉내 내어 부르게 된 산으로, 빵을 세워놓은 듯한 2개의 바위산(해발 396m)으로서 과나바라만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관광지는 식민지 이전에는 인디오 부족이 살고 있었다. 1865년 포르투갈 식민지 이후에는 군부대 기지로 사용되며 관측소로도 이용됐으나, 1909년 케이블카 공사를 시작, 1912년부터 운행(케이블카 길이 1.4km)하고 있다.
비고	전화: +55 (21) 2546-8433 웹사이트: www.bondinho.com.br/

○ 쎄 성당(Catedral Metropolitana de Sao Paulo)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Praca da Se - Se, Sao Paulo - SP 01001-000
운영시간	(일~금) 8:00~19:00 (토요일)8:00~17:00 (일요일)8:00~18:00
명소소개	상파울루에서 제일 큰 성당으로서 시내 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용 능력은 대략 8,000명이다. 이 성당은 1914년에 준공해 1954년도에 완공됐으며, 공사 기간 중에 사망한 인부들의 시신과 역대 신부들의 시신이 묻혀 있다. 성당의 둘레는 112m, 폭은 44m, 높이는 66m(탑 꼭대기까지)이다.
비고	전화: +55 11 3107-6832 웹사이트: http://cidadedesapaulo.com/v2/atrativos/catedral-da-se/?lang=en *코로나19로 인해 입장 금지 또는 시간 변경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이비라뿌에라 공원(Parque do Ibirapuera (Ibirapuera Park))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venida Pedro Alvares Cabral Vila Mariana, Sao Paulo, State of Sao Paulo 04094-050, Brazil
운영시간	(월~일) 05:00~00:00
명소소개	상파울루가 시(市)로 지정된 지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54년 이 공원을 설립했다. 보통 주 중에는 자동차 편을 이용해 출입이 가능하나, 주말에는 자동차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2000년에는 브라질 발견 500주년 행사가 성대하게 벌어져, 지금도 500주년 기념행사 관련 전시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 공원의 면적은 15만 평 정도이며, 주말에는 해변가를 찾지 못한 상파울루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비고	전화: +55 11 5574 5045 웹사이트: https://parqueibirapuera.org/ *코로나19로 인해 입장 금지 또는 시간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이과수 폭포(Cataratas do Iguacu)

도시명	이과수
주소	Rodovia BR 469 - Km18, Foz do Iguacu, State of Parana 85855-750, Brazil
운영시간	(일~토) 09:00~17:00
명소소개	상파울루 시에서 1,348km 지점에 있는 폭포로, 버스로 약 16시간, 비행기로 약 2시간 거리이며,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3국 간 국경을 이루는 빠라나(Parana) 주 포스 두 이과수(Foz Do Iguaco) 시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이다.
비고	전화: +55 45 3521 4400 웹사이트: http://www.cataratasdoiguacu.com.br/

〈자료원 :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 조사〉

마. 식당

- 현지식당

○ 테하쑤 이탈리아(Terraco Italia)

도시명	상파울루
전화번호	+55 (11) 2189-2929
주소	Av. Ipiranga, 344 - Republica, Sao Paulo - SP, 01046-010
가격	약 200헤알
영업시간	(월~토) 12:00~24:00 (일) 12:00~23:00
소개	주요 메뉴: 이탈리아 음식 전반
비고	1달러=5.3헤알(2021년 9월 기준)

○ 포고 데 샤웅(Fogo de Chao)

도시명	상파울루
전화번호	+55 (11) 5056-1795
주소	Av. Moreira Guimaraes, 964, Moema, Sao Paulo, SP, Brazil
가격	약 200헤알
영업시간	(일~토) 12:00~23:30
소개	주요 메뉴: 슈하스꼬(브라질식 바비큐) 등
비고	1달러=5.3헤알(2021년 9월 기준)

○ 아서원(Asawon)

도시명	상파울루
전화번호	+55 (11) 3326-9488
주소	Rua Correia de Melo, 166 - Bom Retiro, Sao Paulo - SP, 01123-020
가격	약 60헤알
영업시간	(월~토) 점심 11:30~15:00, 저녁 17:30~21:30
소개	주요 메뉴: 중국 요리, 짜장면, 짬뽕, 탕수육, 잡탕밥 참고: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가 운영하는 중식당으로 한국인 입맛에 맞는 요리 제공
비고	1달러=5.3헤알(2021년 9월 기준)

○ 아이조메(Aizome)

도시명	상파울루
전화번호	(55-11) 3251-5157
주소	Alameda Fernao Cardim, 39 - Jardim Paulista, Sao Paulo - SP, 01403-020
가격	약 200헤알
영업시간	(월~토) 12:00~14:30, 18:30~23:00
소개	주요 메뉴: 초밥/사시미, 우동
비고	1달러=5.3헤알(2021년 9월 기준)

<자료원 :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 조사>

- 한국식당

○ 석정(Seok Joung)

도시명	상파울루
전화번호	55 (11) 3338-0737
주소	R. Correia de Melo 135,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가격	약 80헤알/1인
영업시간	(월~토) 11:30~14:30, 17:30~21:00
소개	주요 메뉴: 한정식, 불고기 정식, 생선구이, 찌개류 등
비고	1달러=5.3헤알(2021년 9월 기준)

○ 빗고을(Bi Col)

도시명	상파울루
전화번호	+55(11) 3207-9893
주소	R. Jose Getulio, 422 - Liberdade, Sao Paulo - SP, 01509-001
가격	약 100헤알/1인
영업시간	(월~토) 12:00~14:30, 17:30~21:30
소개	주요 메뉴: 불고기, 찌개류, 냉면, 생선구이 등
비고	1달러=5.3헤알(2021년 9월 기준)

○ 다래(Restaurante Dare)

도시명	상파울루
전화번호	+55(11) 3337-2533
주소	R. Correia de Melo 54,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가격	약 60헤알/1인
영업시간	(월~토) 11:30~14:45, 17:30~20:45
소개	주요 메뉴: 한식
비고	1달러=5.3헤알(2021년 9월 기준)

○ 바다횃집(Sashimi do Mar)

도시명	상파울루
전화번호	+55 (11) 3329-9825
주소	Rua Prates, 553, Bom Retiro, Sao Paulo, SP, Brasil
가격	약 70~200헤알
영업시간	(월-일)11:30~14:00, 17:30~21:00
휴무일	월요일
소개	전통 한식 횃집 주요 메뉴: 회, 해물탕, 보쌈, 순두부, 등
비고	1달러=5.3헤알(2021년 9월 기준)

<자료원 :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 조사>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막소우드 플라자 호텔(Maksoud Plaza Hotel)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lameda Campinas 150, Cerqueira Cesar, Zip 01404-000, Sao Paulo, SP, Brazil
전화번호	(55-11) 3145-8000
홈페이지	http://www.maksoud.com.br
숙박료	550~1,000헤알
비고	1달러=5.3헤알(2021년 9월 기준)

○ 보르본 컨벤션 이비라푸에라(Bourbon Convention Ibirapuera)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v. Ibirapuera, 2927, Zip 04029-200, Sao Paulo, SP, Brazil
전화번호	(55-11) 2161-2200
홈페이지	http://www.bourbon.com.br
숙박료	350-1,000헤알
비고	1달러=5.3헤알(2021년 9월 기준)

○ 힐튼 상파울루 모룸비(Hilton Sao Paulo Morumbi)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v. Das Nacoes Unidas, 12901, Zip 04578-000, Sao Paulo, SP, Brazil
전화번호	(55-11) 2845-0000
홈페이지	http://www1.hilton.com
숙박료	800~1,200헤알
비고	1달러=5.3헤알(2021년 9월 기준)

○ 르네상스 상파울루 호텔(Renaissance Sao Paulo Hotel)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lameda Santos, 2233, Zip 01419-002, Sao Paulo, SP, Brazil
전화번호	(55-11) 3069-2233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br/hotels/travel/saobr-renaissance-sao-paulo-hotel/

숙박료	850~1,300헤알
비고	1달러=5.3헤알(2021년 9월 기준)

○ 티볼리 모파헤지 상 파울루(Tivoli Mofarrej Sao Paulo)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lameda Santos, 1437, Cerqueira César, Zip 01419-001, São Paulo, SP, Brazil
전화번호	(55-11) 3146-5900
홈페이지	http://www.tivolihotels.com
숙박료	700~1,200헤알
비고	1달러=5.3헤알(2021년 9월 기준)

○ 그랜드 하얏트 상파울루(Grand Hyatt Sao Paulo)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v. das Nações Unidas, 13301, Brooklyn, Zip 04578-000, São Paulo, SP, Brazil
전화번호	(55-11) 2838-1234
홈페이지	http://saopaulo.grand.hyatt.com
숙박료	800~1,200헤알
비고	1달러=5.3헤알(2021년 9월 기준)

<자료원 : Hotels.com, Booking.com>

- 게스트하우스
없음.

사. 치안

치안상황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치안상태가 매우 불안하며 권총 강도 및 납치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지인 가운데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현지인과 불필요한 시비 및 언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야간 외출 시에는 현금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목걸이나 시계 등 고가품은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권,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돈지갑과 다른 주머니에 휴대하도록 하고, 저녁에는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부는 최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지역이 열악한 주 정부 재정문제로 인한 치안력 약화와 경제 여건 개선 지체로 인하여 조직·생계형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치안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동 지역을 1단계 여행 유의(남색경보)지역에서 2단계 여행자제(황색경보)지역으로 1단계 상향 조정하였다. 리우 지역 여행자나 출장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강도를 만났을 때는 양손을 들어 무기가 없음을 확인시킨 뒤 주머니를 가리키며 돈을 꺼내겠다는 제스처를 보인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천천히 꺼내면서 지갑을 완전히 꺼내기 전에 지갑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킨 뒤 꺼내어 돈을 건네준다.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반항하는 것은 위험하다. 참고로 강도를 당할 것에 대비해 100~200헤알 정도가 든 별도의 지갑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우선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경찰 긴급전화로 연락해 교통 순찰차를 호출, 조서를 꾸미도록 한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충돌사고 및 접촉사고 시에는 도로 옆 안전한 곳에 비켜 세운 후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을 확보 후 가까운 교통경찰 당국에 신고한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580-086으로 교통순찰차를 불러 사고 경위 조서를 꾸민 후 정비공장에 견인하도록 한다. 민사책임이 다르나,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

사고를 대비해 항상 운전 시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정비 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단골로 이용하는 정비공장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상대방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2~3곳 정도의 견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분실사유서 작성
-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장
 - 여권의 경우, 5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4~6주 소요
 - 여행증명서의 경우, 7달러 납부 후 당일 혹은 1~2일 소요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193
- 경찰: 190
- 긴급구조: 192
- 교통사고: 194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브라질은 치안이 불안해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대체로 한정돼 있다. 임대 기간은 쌍방 간 계약에 따라 결정하나, 30개월이 보통 법정 계약 기간이다.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로 1~3개월 전 통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간 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게 돼 있으나, 최근에는 계약 후 12개월 경과 시 위약금을 물지 않고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파울루의 경우 Lopes Imoveis, Paulo Leardi, Coelho da Fonseca 등과 같이 여러 지역에 다수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업체들이 있으므로, 부동산 사무소에 가서 가격, 교육여건, 치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주택을 구하면 된다. 또한, 한국 기업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개하는 한인 부동산 중개인들도 활동하고 있어 언어 문제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화

일반 전화의 경우 과거에는 통화 횟수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했지만, 2007년부터 통화시간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패키지 플랜이 있어 각자의 통화량에 따라 적당한 플랜을 신청하면 된다.

- 철차 및 전화요금(Telefonica/Vivo, 상파울루 통신업체): 가정용 유선 전화요금은 아래와 같으며, 최근에는 휴대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유선 전화가 없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 기본요금(Vivo Fixo Ilimitado): 기본 요금(89.99헤알)을 납부하여 사용하거나 인터넷이나 케이블 채널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다. 패키지 상품은 채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상세정보는 Vivo 홈페이지(<http://www.vivo.com.br/>)에서 열람 가능하다.

전압/플러그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전압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지역에는 60Hz, 110V 또는 220V가 일반적이거나, 살바도르나 마나우스 시에는 127V, 헤시페, 브라질리아 등의 지역에서는 220V가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브라질 가전제품 업체의 경우 110/220V 겸용 제품을 만들거나 2가지 모델을 독립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흔하다. 상파울루에서 220V 전용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적정 코드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는 변압기를 사용하거나 새로 코드를 설치해야 한다. 전기 코드는 미국산 모델과 유사하며 보통 2개의 구멍(11자, 돼지코 모양)이 나 있으나, 한국산과는 규격이 조금 달라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식수

석회질이 많아 수도물을 식수로 이용할 수 없으며, 미네랄워터를 구입해야 한다. 음식점에서도 식수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으며 별도로 주문해야 한다. 미네랄워터 주문 시에는 '아과 썬 가스(gua sem gs)'를 주문해야 가스가 포함되지 않은 보통 미네랄 워터를 가져온다. 참고로 탄산가스 포함 워터는 '아과 콩 가스(gua com gs)'라 칭한다. 미네랄 워터는 용량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나, 200mL가 약 3~6헤알 선이다. (2021년 9월 기준 환율: 1달러 = 5.3헤알)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Audi, BMW, Chevrolet(General Motors), Chrysler, Citroen, Crosslander, Fiat, Honda, Hyundai, Jaguar, Jeep, Kia, Land Rover, Lexus, Mercedes Benz, Mitsubishi, Nissan, Peugeot, Porsche, Renault, Subaru, Toyota, Troller, Volkswagen, Volvo 등 자동차 메이커의 대부분이 브라질 시장에 진출해 있다. 현지에 자동차를 생산하는 GM, Fiat, Volkswagen 등은 대부분의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해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에 진출한지 수십년이 넘는 Ford 자동차는 2021년 연초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브라질 국민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자동차는 GM의 GOL 시리즈이며, 오토매틱보다는 연료를 적게 소비하는 기계식 차량이 더 많이 팔린다. 최근에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80% 이상이 알코올과 휘발유의 혼용이 가능한 Flex 차량이다.

차량가격

브라질 자동차의 경우, 국산은 약 5만~30만 헤알이며 수입차는 수만~수십만 헤알까지 매우 다양한 편이다. 브라질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높은 판매실적을 보이는 자동차 모델로는 골(Gol), 팔리오(Palio), 우노(Uno), 셀타(Celta), 폭스(Fox), 밀레(Mille) 등으로 조사됐는데, 이 차량은 모두 국민차 수준의 소형 차량이다. 현대 브라질 법인이 생산한 소형차 HB20은 승용차 판매 순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브라질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국제운전면허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교통국(DETRAN)에 정식으로 신청해 승인을 얻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주재원 자격으로 운전면허증을 받기를 희망하면 국제운전면허증 대신 한국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 원본을 가지고 현지의 공증번역사(TRANADUTOR JURAMENTADO)에 포어 원문으로 번역 및 공증을 의뢰하고, 이를 교통국에 제출해야 한다. 교통국에 운전면허증 신청 시 발급일까지는 대개 1주일 정도 소요된다. 대행사(Despachante)에 의뢰할 경우 500헤알 정도가 소요되며, 직접 교통국에 찾아가는 불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지에서 운전면허증을 처음 받는 경우 이론교육(45시간), 운전 실기 수업(20시간), 시뮬레이션(5시간)을 받아야 면허시험(필기 및 실기)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수업을 포함해 면허 취득과정에 대략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비용은 평균 2,000~3,000헤알 정도이다. (2021년 9월 환율: 1달러=5.3헤알)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ITAU
 - 브라질 시중 은행 중 하나로 약 5,000개 지점 보유, 해외 21개국에 지점 보유
 - www.itau.com.br
- BRADESCO
 - 브라질 시중 은행 중 하나로 약 4,800개 지점 보유
 - www.bradesco.com.br
- BANCO DO BRASIL 은행
 - 브라질 국영 은행 중 하나로 정부가 은행 지분의 54% 보유
 - www.bb.com.br
- Caixa Economica Federal
 - 브라질 국영 은행 중 하나로 정부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택 자금 대출 등 업무
 - www.caixa.gov.br

- Santander
 - 스페인계 시중 은행으로 1982년에 브라질에 진출
 - www.santander.com.br
- 한국계 은행
 -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외환은행이 진출해 있음.

계좌 개설방법

브라질에는 직불카드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가전제품 및 IT 제품의 장기 할부 판매가 급증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자도 늘고 있다. 브라질은 치안불안 때문에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법인이 물건 구매 대금을 지불 시에 수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와 같이 자기앞수표 개념과 다른 개인 당좌수표가 대부분이며, 수표 사용 시에는 현장에서 수표에 서명을 날인해 발행한다. 따라서 현지화 당좌계좌 개설은 필수적이고, ID, CPF(개인 납세번호) 등이 발급된 후 정식으로 계좌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지화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주로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달러화 계좌는 Itau 등과 같은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송금 및 달러 인출 시 수수료가 높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Graded School- Associacao Escola Graduada de Sao Paulo

도시명	상파울루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료(2021년 7월 ~ 2022년 6월 까지) - Lower School(K3 ~ Grade 5): 9,345헤알 - Upper School (Grades 6 to 12): 11,474헤알
홈페이지	http://www.graded.br
비고	등록금의 경우, 3개월 단위로 받기 때문에 만약 3월에 등록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1, 2월 학비도 지불해야 한다. 미국인 학교가 상파울루 외국학교 중 가장 좋은 학교로 꼽히며, 입학 시 시험(test)이 엄격하고 빈 자리가 많지 않다.

○ PACA - Pan American Christian Academy

도시명	상파울루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시험비: 250헤알 ○ 등록금: 5,000헤알 ○ 학비(2020년 7월~2021년 6월, 신입생 기준) - 초등학교: 연 53,220헤알 - 중학교: 연 58,620헤알 - 고등학교: 연 66,780헤알
홈페이지	http://www.paca.com.br
비고	Pan American Christian Academy는 크리스천 학교로 Non profit 학교이다. 1960년 상파울루에 설립됐다.

○ Chapel School - Escola Maria Imaculada

도시명	상파울루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시험비: 513헤알 ○ 등록금(Pre I): 7,494 헤알 (Pre II to 6th grade): 7,695 헤알 (7th to 12th grade): 8,730 헤알 ○ 학비 (2020년, 신입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 I : 7,494 헤알/월 - Pre II to 6th grade: 7,695 헤알/월 - 7th to 12th grade: 8,730 헤알/월
홈페이지	http://www.chapelschool.com
비고	가톨릭 재단 학교로 1947년 상파울루에 설립됐으며, 약 700명의 학생이 있다.

<자료원 :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 조사>

- 현지학교

○ Colegio Bandeirantes

도시명	상파울루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비(2021, 신입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6~8학년): 4,271.00헤알/월 - 중학교(9학년): 4,374.00헤알/월 - 고등학교(1~3학년): 4,659.00헤알/월
홈페이지	http://colband.net.br/

○ Colegio ETAPA

도시명	상파울루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비(2021년, 신입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1~5학년): 3,430.00헤알/월 - 중학교(6~9학년): 4,569.00헤알/월 - 고등학교(1~3학년): 4,569.00헤알/월
홈페이지	https://www.colegioetapa.com.br/

○ Colegio Rio Branco

도시명	상파울루
-----	------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비(2020년, 신입생 기준) - (초등학교) 오전반: 2,425.86헤알/월, 오후반: 1,940.69헤알/월 - (중학교) 1학년 오전반: 2,425.86헤알/월, 오후반: 2,132.90헤알/월 2학년 오전반: 2,666.13헤알/월, 오후반: 2,132.90헤알/월 3~5학년 오전반: 2,924.20헤알/월, 오후반: 2,339.36헤알/월 6학년 오전반: 3,150.23헤알/월 7~9학년 오전반: 3,271.25헤알/월 - (고등학교) 1학년 오전반: 3,463.46헤알/월, 2~3학년 오전반: 3,636.11헤알/월
홈페이지	http://www.crb.g12.br/

〈자료원 :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 조사〉

마. 병원

○ Hospital Israelita Albert Einstein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v. Albert Einstein, 627 - Jardim Leonor, Sao Paulo - SP, 05652-900
전화번호	+55 (11) 2151-1233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s://www.einstein.br/en/Pages/Home.aspx (해외전용url)

○ Hospital Sao Luiz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Rua Engenheiro Oscar Americano, 840 - Jardim Guedala, São Paulo - SP, 05605-050
전화번호	+55 (11) 3093-11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www.saoluiz.com.br

○ Hospital Paulistano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R. Martiniano de Carvalho, 741 - Bela Vista, Sao Paulo - SP, 01321-001
전화번호	+55 (11) 3016-1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www.hospitalpaulistano.com.br

◦ Hospital e Maternidade Pro Matre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R. Sao Carlos do Pinhal, 139 - CEP: 01333-001 - Bela Vista - São Paulo - SP
전화번호	+55(11) 3269-2233
진료과목	산부인과
비고	https://www.promatresp.com.br/

◦ Hospital Sirio Libanes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Rua Dona Adma Jafet, 115 - Bela Vista, Sao Paulo - SP
전화번호	+55(11) 3394-02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www.hsl.org.br

◦ 나사렛 종합병원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R. Newton Prado, 88 - Bom Retiro, Sao Paulo - SP
전화번호	+55(11)3337-6703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한국인 운영 병원

<자료원 :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 조사>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Shopping Iguatemi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v. Brig.Faria Lima 2232, Jd. Paulistano, SP
홈페이지	https://iguatemi.com.br/saopaulo/
비고	상파울루 시내 고급 백화점

○ Shopping Morumbi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v. Roque Petroni Jr. 1089, Vl. Gertrudes, SP
홈페이지	http://www.morumbishopping.com.br/
비고	상파울루 시내 고급 백화점

○ Shopping Higienopolis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Av. Higienopolis 618, Higienopolis, SP
홈페이지	https://iguatemi.com.br/patiahigienopolis/
비고	상파울루 시내 Iguatemi구름 쇼핑

<자료원 :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 조사>

- 식품점

○ 오뚜기 슈퍼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R. Tres Rios, 251,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및 반찬, 일용잡화 판매
비고	전화: (55-11) 3326-1419

○ 롯데슈퍼

도시명	상파울루
주소	R. Prates, 354,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및 반찬, 일용잡화 판매
비고	(55-11) 3227-1914/ 3229-6610

<자료원 : 상파울루 무역관 자체 조사>

- 기타 편의시설
없음.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	2022-01-01	
카니발	2022-02-28	2022년2월28일~3월2일
성금요일	2022-04-15	매년 변경
Tiradentes 독립투사기념일	2022-04-21	
노동절	2022-05-01	
상파울루주 헌법 개정일	2022-07-09	상파울루 주에서만 기념
독립기념일	2022-09-07	
성모 발현일	2022-10-12	
위령일	2022-11-02	
공화국 선포일	2022-11-15	
성탄일	2022-12-25	

<자료원 : https://www.feriados.com.br/feriados-sao_paulo-sp.php?ano=2022 * 코로나19로 휴일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음 >

10. KOTRA 무역관 안내

○ 상파울루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Alameda Santos 700, 8th floor. Edificio Trianon Corporate - Cerqueira Cesar, Cep. 01418-100, Sao Paulo, SP, Brazil
- 전화번호: 55-11-3175-3030
- 이메일: saopaulo@kotra.com.br
-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KBC/saopaulo>

* 주의 사항: 2021년 9월 기준 상파울루 무역관은 코로나19 백신 1차 및 2차를 접종한 직원을 중심으로 정상 근무 체제로 복귀하고 있으며 나머지 직원 재택 근무 중이다. 무역관 방문 또는 직원 면담 등을 희망하는 경우 메일로 먼저 사무실 / 재택 근무 여부를 확인 후 방문이나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 버스: 시내로 가는 공항버스가 있으며 Paulista 거리 인근에 위치한 Maksoud Plaza Hotel 앞에 하차한다. 호텔에서 무역관까지는 650m로 도보로 9분 거리이다.
 - 택시: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약 160헤알 소요
 - 최근에는 상파울루 과룰류스 공항 제 2터미널과 제 3터미널에서 우버 택시 호출이 가능하다. 우버를 이용하여 과룰류스 공항에서 KOTRA 상파울루 무역관까지는 약 70~80헤알 정도 소요된다.
- 건물 도착 후
 - 로비 Security Desk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역관에 유선으로 확인 후 출입증을 제공해 준다. 무역관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